

연구보고 07-R01-3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2

청소년 사교육 이용실태 및 효과에 대한 중단분석

책임연구원 :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초등패널자료와 중등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는 우리나라 청소년 전반에 대한 사교육 이용 실태 및 추세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
- 사교육이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고교진학, 학업 스트레스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2. 주요 연구내용

-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사교육 참여 비율은 93.9%였다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91.7%로 소폭 감소한 후 중학교 3학년일 때 73.8%로 낮아졌다가 고교 진학 후 58.9%로 크게 낮아져 상급학교 진학 시에 사교육 이용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짐
- 사교육 이용비율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은 대신 지역별 차이는 학급이 올라갈수록 뚜렷해짐. 특히 고교 진학 후 지역간 격차는 서울(80.7%)이 농촌(33.9%)보다 무려 46.8%p나 사교육을 더 받음
- 학교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최하위 성적군(1분위)은 87.9%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최상위 성적군(5분위)은 거의 전원에 해당하는 98.4%가 사교육을 이용

-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 달 평균 24.2만원 → 26.8만원 → 32.0만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교 때의 사교육비 추세도 중학교 2학년일 때 32.1만원인데 비해서 중 3 때는 35.2만원, 고 1 때는 42.4만원, 고2 때는 44.6만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승
- 사교육 분석모형의 결과 중 먼저 사교육 참여 모형의 경우 사교육 참여에 있어서 거주 지역별 격차는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상위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분명해 짐. 두 번째로 부모의 교육, 가구소득 등 가족배경의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가족구조와 관련하여 형제자매가 증가할수록 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추정. 사교육비 모형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줌
- 학업성적에 대한 사교육의 영향력은 초등학교 4학년 때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크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감소하고 사교육 참여 여부를 독립변수로 투입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줌. 이 같은 사실은 학업성적에 미치는 사교육 효과가 주로 고등학교 이전에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 고교 진학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교육은 전문고 대신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혹은 일반고에 진학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사교육비로 측정된 경우에 사교육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남
- 마지막으로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사교육의 부정적인 효과는 매우 분명하게 관측되고 있으며 특히 고교 진학 후에 더 분명하게 나타남. 이 경우에는 1-2과목만 받는 경우도 3과목 이상 받는 경우보다 학업 스트레스를 덜 느낌

3. 정책제언

- 한 국가에서 사교육의 역할이 강화전략(enrichment strategy)인가, 보강전략(remedial strategy)인가는 큰 차이가 있음. 전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주로 사교육을 받는 경우로 교육 격차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면 후자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보강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경우로 교육 격차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음.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사교육 억제에 쉽지 않다면 사교육의 역할이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학부모의 사교육 투자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곧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본 후 사교육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좋은 학업성취도가 나올 수 있도록 사교육을 미리 이용한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좋은 성취도를 보일 수 있는 자녀의 경우에도 사교육을 받고 보는 관행이 우리사회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과잉 중복투자로 나타날 수 있음. 이와 관련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필요이상의 투자를 유도하는 사교육기관들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교육 이용 강도는 사교육 이용 여부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 사교육을 이용하게 되면 제한된 시간에서 다른 유용한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됨. 일례로 이 연구에서 3과목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 비해 매우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보여주고 있음. 이와 관련 과도한 사교육 이용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
- 사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음. 학업스트레스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 대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줄어들게 하며 동아리활동이나 자

원봉사활동 등 건전한 사회참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사교육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사회 일반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야 함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논의	
1.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교육 이용 실태의 특징	9
2.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 사교육 효과 분석	14
III.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1. 분석자료	21
2. 연구모형 및 변수	22
1) 사교육 참여 모형	22
2) 사교육비 모형	23
3) 학업성적 모형	23
4) 진학모형	25
5) 학업 스트레스모형	25
IV. 분석결과	
1.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와 추세	29
1) 사교육 이용 실태와 추세	29
2) 사교육 과목수 실태 및 추세	38
3) 사교육시간의 실태 및 추세	41
4) 사교육비 실태 및 추세	53
2. 분석모형 결과	60
1) 사교육 참여 모형	60
2) 사교육비 모형	64
3) 학업성적 모형	67
4) 고교진학 모형	74
5) 학업 스트레스 모형	77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요약	82
1)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와 추세	82
2) 분석 모형의 결과	84
2. 정책 제언	86
참고문헌	89

표 목차

[표 II-1]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규모	10
[표 IV-1] 초등학교 3개년도 집안 환경과 사교육 여부	37
[표 IV-2] 중·고등학교 4개년도 집안 환경과 사교육 여부	38
[표 IV-3] 초등학교 3개년도 사교육 과목수	39
[표 IV-4] 중·고등학교 4개년도 사교육 과목수	40
[표 IV-5] 초등학교 3개년도 사교육 시간	41
[표 IV-6] 중·고등학교 4개년도 사교육 시간	42
[표 IV-7] 초등학교 3개년도 성별 사교육 시간 비교	43
[표 IV-8] 중·고등학교 4개년도 성별 사교육 시간 비교	44
[표 IV-9] 초등학교 3개년도 지역별 사교육 시간 비교	45
[표 IV-10] 중·고등학교 4개년도 지역별 사교육 시간 비교	46
[표 IV-11] 초등학교 3개년도 성적별 사교육 시간 비교	47
[표 IV-12] 중·고등학교 4개년도 성적별 사교육 시간 비교	48
[표 IV-13] 초등학교 3개년도 결손가정 유무와 사교육 시간	49
[표 IV-14] 중·고등학교 4개년도 결손가정 유무와 사교육 시간 ..	50
[표 IV-15] 초등학교 3개년도 아버지 직업과 사교육 시간	51
[표 IV-16] 중·고등학교 4개년도 아버지 직업과 사교육 시간	52
[표 IV-17] 중·고등학교 4개년도 고등학교 계열과 사교육 시간 ..	53
[표 IV-18] 초등학교 4학년 사교육 참여 모형	61
[표 IV-19] 중학교 2학년 사교육 참여 모형	62
[표 IV-20] 고등학교 1학년 사교육 참여 모형	63
[표 IV-21] 초등학교 4학년 사교육비 모형	64
[표 IV-22] 중학교 2학년 사교육비 모형	65
[표 IV-23] 고등학교 1학년 사교육비 모형	66
[표 IV-24] 초등학교 4학년 학업성적 모형(사교육 여부)	68
[표 IV-25] 초등학교 4학년 학업성적 모형(사교육비)	69
[표 IV-26] 중학교 2학년 학업성적 모형(사교육 여부)	70
[표 IV-27] 중학교 2학년 학업성적 모형(사교육비)	71

[표 IV-28] 고등학교 1학년 학업성적 모형(사교육 여부)	72
[표 IV-29] 고등학교 1학년 학업성적 모형(사교육비)	73
[표 IV-30] 고교진학 모형(사교육 여부)	75
[표 IV-31] 고교진학 모형(사교육비)	76
[표 IV-32] 사교육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77

그림 목차

[그림 II-1] 24시간 사교육 시간량 변화	10
[그림 II-2] 교육단계별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규모	11
[그림 IV-1] 초등학교 3개년도 사교육 이용비율	30
[그림 IV-2] 중·고등학교 4개년도 사교육 이용비율	31
[그림 IV-3] 초등학교 3개년도 성별 사교육 이용 비율	32
[그림 IV-4] 중·고등학교 4개년도 성별 사교육 이용비율	33
[그림 IV-5] 초등학교 3개년도 지역별 사교육 이용비율	34
[그림 IV-6] 중·고등학교 4개년도 지역별 사교육 이용비율	34
[그림 IV-7] 초등학교 3개년도 학교성적별 사교육 이용비율	35
[그림 IV-8] 중·고등학교 4개년도 학교성적별 사교육 이용비율	36
[그림 IV-9] 초등학교 3개년도 성별 한 달 평균 사교육비	54
[그림 IV-10] 중·고등학교 4개년도 성별 한 달 평균 사교육비	55
[그림 IV-11] 초등학교 3개년도 지역별 한 달 평균 사교육비	55
[그림 IV-12] 중·고등학교 4개년도 지역별 한 달 평균 사교육비	56
[그림 IV-13] 초등학교 3개년도 학교성적별 한 달 평균 사교육비	57
[그림 IV-14] 중·고등학교 4개년도 학교성적별 한 달 평균 사교육비	57
[그림 IV-15] 초등학교 3개년도 가정형편별 한 달 평균 사교육비	58
[그림 IV-16] 중·고등학교 4개년도 가정형편별 한 달 평균 사교육비	59

I. 서론

I.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OECD와 UNESCO의 보고서(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 학생 평가(PISA: the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가장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and UNESCO, 2003). 곧 문제해결능력 1위, 읽기능력 2위(2000년 6위), 수학능력 3위(2000년 3위), 과학능력 4위(2000년 1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교대상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성취도 상위권 국가로서 언뜻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특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일반적으로 학생 1인당 학교 교육비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평균 성취도가 함께 증가하는데 비해서 한국과 아일랜드는 우수한 성취도를 보여 주고 있는데 반해서 학생 1인당 학교 교육비 지출이 35,000달러로 OECD 평균(45,000달러)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OECD, 2002).

두 번째는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 지수의 결과였다. 이 지수는 소속감을 주제로 한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산출한 것인데 놀라운 것은 가장 낮은 학교 소속감을 보여준 3개국 가운데 2개 국가(한국 1위, 폴란드 2위, 일본 3위)가 최상위권의 학업성취도를 보여준 국가였다는 점이다(OECD, 2004)¹⁾.

마지막은 학생들의 가족배경과 학업 성취간의 관계 정도에 대한 결과였다. 한국과 일본은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여주면서도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 OECD와 UNESCO의 보고서(2003)는 사회계층간 교육기회의 격차 없이

1) 이와 관련 학교소속감 외에 2003년 PISA에서 수학과목에 대한 흥미 점수(31위)나 동기 점수(38위)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도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사례로 캐나다, 스웨덴, 홍콩 등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을 지목하고 있다(OECD and UNESCO, 2003: 178-179).

이러한 독특한 결과들은 한국 사회의 특정한 교육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사교육 문제로 사교육은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현상의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먼저 한국은 학교 교육비는 낮지만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숨겨진 막대한 교육투자가 우리나라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를 가져왔을 개연성이 있다. 사교육을 흔히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이라고 부르는 맥락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Stevenson & Baker, 1992).

두 번째로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가장 낮은데도 왜 한국의 학생들은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 역시 사교육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교육에 잘 적응하여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여주고 있기 보다는 공교육을 보충하는 사교육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사회계층간 교육 격차는 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한국에서 사교육 이용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격차가 보고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의 사교육 참여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 초등교육의 경우에는 80%이상, 중등교육의 경우 절반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계층에 걸쳐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과 문제풀이 능력이 탁월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교육 이용 실태와 추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사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교한 분석이 매우 절실하다는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사교육 실태와 추세에 대해 공통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은 사교육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단계별 경향은 사교육 참여율의 감소와 사교육비의 증가를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고 사교육 이용에 있어서 계층간 격차가 뚜렷하며 확대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반면, 사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사교육이 본래 의도대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기여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선행 연구들은 공통된 결과를 발견하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사교육 효과는 확신할 수 없거나 있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교육단계별로 사교육의 양상이 다르듯 사교육 효과 역시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교육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와 진학에 미치는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교육 참여 여부, 사교육비, 사교육 과목수 등 사교육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상대적으로 사교육 효과를 논의하기 이전에 사교육 참여나 사교육비 등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효과와 관련하여 주로 학업 성적이나 진학이 다루어져 왔으나 사교육 효과의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점에서 균형 있는 여가활용이나 다양한 활동, 혹은 학업스트레스 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교육단계별로 사교육 참여 여부나 사교육비, 사교육 과목수 등에 따른 사교육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하며 예비적 고찰로써 사교육 참여나 사교육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와 함께 사교육의 부정적인 효과와 관련해서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사교육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우리나라 사교육 이용실태의 특징
2.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 사교육 효과 분석

II. 이론적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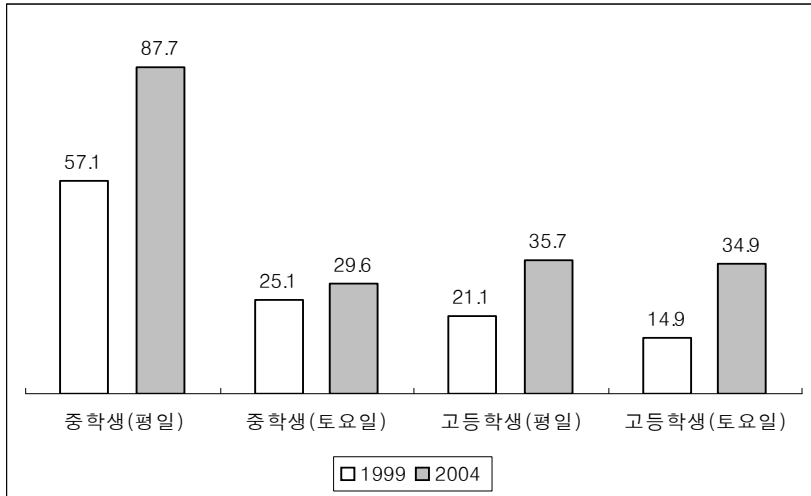
1.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교육 이용 실태의 특징

우리나라 사교육 이용 실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둘째, 교육단계별로 보면 사교육 참여비율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반해서 사교육비 규모는 상위단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셋째, 사교육 이용에 있어서 지역이나 계층간에 격차가 존재한다. 넷째, 사교육 이용의 목표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사교육이 실제로 기여해 왔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논쟁이 되고 있는 네 번째 경향은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이 절에서는 명확하게 검증되고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교육 참여나 이용시간, 비용은 증가해 왔는가. 이를 뒷받침 해주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다. 먼저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 경감방안 보도 자료에 따르면(양정호, 2005), 1980년 초등학교의 경우 사교육 참여비율은 12.9%에서 불과했으나 2000년 70.7%로 상승했고 2003년 83.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같은 시기 20.3%→59.5%→75.3%로, 고등학교의 경우 같은 시기 26.2%→35.6%→56.4%로 증가하였다.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생활시간조사는 사교육 이용시간이 증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김기현·이경상, 2006). [그림 II-1]은 1999년과 2004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평일과 토요일 생활시간 중 사교육 이용시간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1999년 평일 57.1분을 사교육에 사용한 반면 2004년에는 87.7분을 사용해 5년 후에 30.6분 사교육시간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도 같은 시기 21.1분에서 35.7분으로 증가하였다.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의 경우도 각각 4.5분, 20.0분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자료: 통계청(1999/2004).

[그림 II-1] 24시간 사교육 시간량 변화(분)

<표 II-1>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규모(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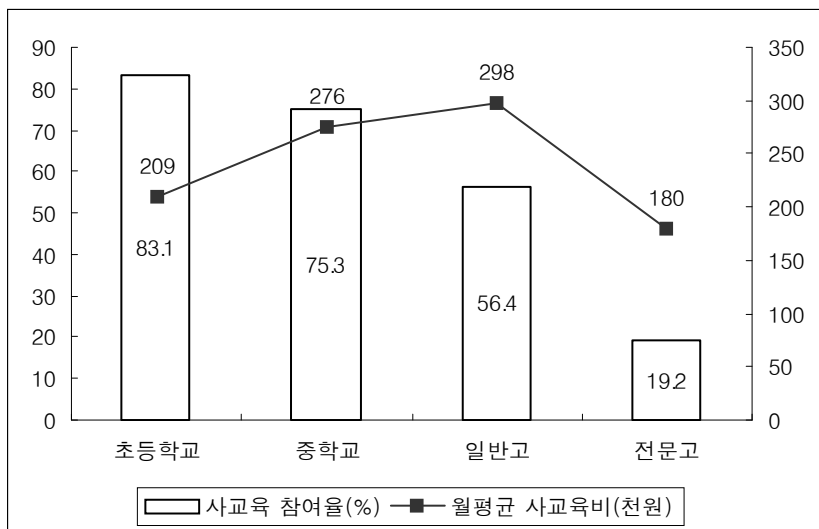
	분기	교육비	증감률	보충교육비	증감률	학원 및 개인교습비	증감률
2004	1/4	282.2	17.6	129.1	16.6	-	-
	2/4	172.4	0.1	132.5	8.9	-	-
	3/4	255.5	2.8	130.3	8.2	115.7	7.5
	4/4	169.2	-3.0	128.4	5.0	113.6	5.0
	연간	219.8	5.3	130.1	9.5	114.9	8.4
2005	1/4	282.2	0.0	132.7	2.8	116.7	0.0
	2/4	179.5	4.1	140.6	6.1	119.8	5.6
	3/4	272.3	6.6	149.6	14.8	126.5	9.3
	4/4	185.0	9.3	144.4	12.4	126.1	11.0
	연간	229.7	4.5	141.8	9.0	122.3	6.5
2006	1/4	310.1	9.9	152.2	14.6	135.2	15.9
	2/4	191.0	6.4	151.2	7.6	127.6	6.5
	3/4	280.4	3.0	141.9	-5.1	128.2	1.3

자료: 통계청(2007)

사교육 지출규모도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규모 중 학원 및 개인교습비는 2004년 3/4분기 114.9천원에서 2006년 3/4분기 128.2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사교육 참여비율이든, 이용시간이든, 비용규모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경향, 곧 사교육 참여비율은 학년과 학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대신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는가. 교육단계별 사교육 이용실태를 분석한 최상근 외(2003)의 분석은 사회적 시간에 따른 사교육 증가 추이와는 달리 개인적 시간에 따른 사교육 추이를 제시해 주고 있다.



자료: 최상근 외(2003).

[그림 II-2] 교육단계별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규모

[그림 II-2]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에서 일반고에 이르는 교육단계별로 83.1%에서 56.4%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전문고(전 실업고)의 경우는 더 낮아서 19.2%의 학생만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사교육비는 전문고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상

승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단계별로 보면 209천원→276천원→298천원으로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향과 관련하여 양정호(2006)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동일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계층간 사교육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04년 사교육비 지출정도에 따라서 전체집단을 5분위로 구분했을 때 1분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9.8만원인데 비해서 5분위는 83.8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소득계층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교육비 지출 하위 20% 집단과 상위 20% 집단 간의 사교육비는 2001년 7.6배에서 2004년 8.6배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는 우천식 외(2004)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2003년의 경우, 소득 상위 10분위 그룹은 1분위 그룹보다 4.8배의 사교육비(40.7만원 > 8.5만원)를 지출하고 있으며 소비지출 분위별로 볼 때 이러한 차이는 8배(48만원 > 6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교육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단계별 경향은 사교육 참여율의 감소와 사교육비의 증가를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고 사교육 이용에 있어서 계층간 격차가 뚜렷하며 확대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교육 이용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추세는 어떠한가? 이와 관련 Baker et. al.(2001)은 1994년과 1995년에 7-8학년(중학생) 학생을 대상으로 41개국에 대해 실시된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 The Trends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 이용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 몇 가지 경향성을 밝히고 있다.

먼저 사교육은 국제적으로 볼 때 널리 퍼져있는가? TIMSS 자료에 의하면 41개국의 7-8학년 학생들 3명 중 1명 이상(37.6%)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이 40%를 넘는 국가들은 필리핀, 일본, 홍콩,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었으며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독일과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사교육 참여율이 20%에 미치지 못하였다. 한국은 41개국 중 13번째로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국가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동아시아 국가들 외에도 동구권과 일부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교육의 근본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Baker et. al.(2001)은 사교육의 근본적인 역할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미래의 교육경쟁에서 이점을 얻고자 사교육을 받는 강화전략(enrichment strategy)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업성취를 얻고자 사교육을 받는 보강전략(remedial strategy)으로 구분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떤 전략으로 사교육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41개국 중 한국, 루마니아, 태국 등 3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사교육의 역할이 보강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세 번째로 어떤 요인들이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Baker et. al.(2001)은 국가수준에서 고려한 영향요인들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측정에서 머물지 않고 학교가 학생들의 시험성적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고부담시험제도(high-stakes testing) 여부, 각 국가별 GNP 대비 공교육비 부담비율, 각 국가별 진학률, 각 국가에서 학업성취도 시험문제를 끝까지 치른 학생들의 비율 등이었다. 이 중에서 공교육비 부담비율과 진학률은 사교육의 국가별 규모에 대해 25-40%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사교육은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국가 평균 학업성취도에 대해서 사교육이용비율, 사교육 평균 이용시간, 사교육 이용강도 등 사교육 관련 변수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한 국가에서 사교육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 국가의 학업성취 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비교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폭넓은 사교육 이용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둘째, 사교육의 역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낮은 성적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최소한도로 따라가기 위한 보강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한 강화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한 국가에서 사교육의 이용 규모는 공교육비 규모나 진학을 등 대중교육의 특성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넷째, 개인 수준의 학업성취도에 사교육이 효과를 가질지 모르지만 국가 수준에서 사교육의 규모가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개인 수준에서 사교육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함의, 그리고 이 연구의 핵심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 사교육 효과 분석

사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사교육이 본래 의도대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기여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이는 Stevenson & Baker(1992)가 제기한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한 사회에서 그림자 교육이 발달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첫 번째는 교육 배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상급학교 진학의 기준이 공식적인 시험으로 이루어지는가 여부이다. 이는 특히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서 어떤 공개적인 시험의 결과가 결정적이라면 사교육이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터너(Turner, 1960)의 교육과 계층이동 이론에서 지적한 바 있는 경쟁적 이동(contest rules)이나 후원적 이동(sponsorship rules) 중에서 경쟁적 이동이 지배적인지, 아닌지의 여부이다. 경쟁적 이동은 기존의 상위계층이 가진 기득권을 배제하고 순전히 개인의 자질과 노력에 의해 성공이 결정되는 이동을 의미하며 후원적 이동은 경쟁방식을 피하고 통제된 선발과정에서 따라 기성 지배층이 미래의 엘리트층을 선발하여 준비교육을 시킴으로서 지위를 상승시키는 이동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초·중등 교육단계의 교육 배분과 그 이후 교육기회 및 직업, 일

반적인 사회 지위간의 연관성이 매우 긴밀한가의 여부이다. 교육적 성공이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공식 교육 이외의 교육 투자를 통해서라도 교육적 성공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이들은 이러한 교육체계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들로 대만, 홍콩,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을 지목하고 일본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진학에 미치는 사교육 효과를 분석하여 사교육 이용이 진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 역시 사교육 효과 추정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Bray, 1999; Bray & Kwok, 2003; Kulpoo, 1998; Polydorides, 1986; Sawasda & Kobayashi, 1986)²⁾.

일본에서의 사교육 효과를 분석한 Sawada & Kobayashi(1986)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에 미치는 사설학원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 더 높은 수학점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스의 사교육 효과를 분석한 Polydorides(1986)는 고등학교 고학년(senior high school)의 학업성취도(GPA 점수)에 대해서 주당 사교육시간으로 측정한 사교육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 정도는 약했다고 지적하였다.

아프리카 남단의 모리셔스(Mauritius)를 분석한 Kulpoo(1998)는 6학년(grade 6) 학생의 문해력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학교 시간외에 사교육 여부가 문해력 점수에 매우 강력한 매개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교육 여부는 부모와 교사간의 상호작용, 학교 시설, 도서관 접근성, 거주지역보다 문해력 점수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사교육 효과가 인정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도 사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Fergany(1994)는 이집트 교육부에서 1990년과 91년에 걸쳐 18,000명의 학령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

2) 이하의 외국 사교육 효과에 대한 논의는 주로 Bray(1999)를 참조함.

시한 연구에서 사교육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외학습이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Fergany(1994)는 특히 이들 중 일부를 추적하여 초등학교 단계에서 사교육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면, 대학생 선발방식이 학력고사,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특정 시험 결과에 의해서 좌우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왜 사교육이 만연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보면, 후원적 이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존재하고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한국사회가 경쟁적 이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임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 조건의 경우 이것이 Stevenson & Baker가 생각하는 학력주의(meritocracy)인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학벌주의(김상봉, 2006)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교육적 성공이 강조되는 사회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그림자교육이 만연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제, 곧 사교육 투자가 학업성취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인 것인가? 최근의 국내 선행 연구들은 사교육 효과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내놓고 있다.

먼저 김정식(2003)은 대구지역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사교육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적 하위권 학생의 일부 교과에서 사교육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었으나 그 영향력은 가족배경과 선행학습을 통제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천식 외(2004)는 상위권 4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대)의 대학재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대학학점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교내신성적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사교육기간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김미란(2005)은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외시간이 수학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 지역에서만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개인학습시간의 경우 지역조건이나 부모의 소

득, 가족배경의 영향을 통제하더라도 그 효과가 안정적으로 성적을 높인다고 지적하였다.

반상진·정성식·양성관(2005)은 과외요인(과외 경험 유무, 과외 투입 시간, 과외비 지출 규모)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거의 무시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과외가 학업성취도 증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추론하였다.

류한구(2006)는 교육고용패널자료(KEEP)를 이용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 참여 여부로 측정된 사교육 효과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학생의 수업태도를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학교 수업과 그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양정호(2007)는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중 2학년부터 6년간 사교육 경험이 대학진학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미진학 대비 2년제 전문대학 진학에는 사교육 효과가 낮게 추정되었으나 2년제 대학 대비 4년제 대학 진학에는 사교육 효과가 높게 추정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최형재(2007)는 대학입학이라는 측면에서 사교육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교육 참여 여부의 경우 사교육 경험이었을 때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지만 그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사교육에 지출하는 액수가 많아지더라도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높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사교육 효과는 확신할 수 없거나 있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교육단계별로 사교육의 양상이 다르듯 사교육 효과 역시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교육 효과에 있어서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와 진학에 미치는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교육 참여 여부, 사교육비, 사교육 과목수 등 사교육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상대적으로 사교육 효과를 논의하기 이전에 사교육 참여나 사교육비 등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효과와 관련해서 주로 학업 성적이나 진학이 다루어져 왔으나 사교육 효과의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점에서 균형 있는 여가활용이나 다양한 활동, 혹은 학업스트레스 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교육단계별로 사교육 참여 여부나 사교육비, 사교육 과목수 등에 따른 사교육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하며 예비적 고찰로써 사교육 참여나 사교육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와 함께 사교육의 부정적인 효과와 관련해서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사교육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Ⅲ. 분석 자료 및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2. 연구모형 및 변수

III. 분석 자료 및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KYPS는 동일 표본을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패널설계를 기본 원칙으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3년(중학교 2학년)부터 2008년(고등학교 3학년 졸업이후 1년차)까지 6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하고,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4년(초등학교 4학년)부터 2008년(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패널은 2003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제주도 제외)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추출방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3,697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차년도 자료 수집은 2003년 10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청소년들의 경우 4인의 면접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집단면접조사를, 부모의 경우에 가구의 사회경제적지위(SES)에 한해서 전화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3,449명의 청소년 및 부모가 응답하였으며 이 표본을 바탕으로 이후의 조사가 수행되었다. 2차년도 자료 수집은 2004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집단면접조사를 했던 1차년도와 달리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인별 추적을 통한 개별면접조사가 실시되었다. 부모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전화면접조사를 하였다. 2차년도 자료수집결과 해외유학 및 이민, 거절,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조사를 실패한 표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응답한 사례수는 청소년은 3,211명, 부모는 3,122명이었다. 3차년도 자료 수집은 2005년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청소년과 부모 모두 2차년도와 동일하다. 자료수집결과 청소년 3,125명, 부모 3,081명이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4차년도 자료 결과는 청소년 3,121명,

부모 3,077명이 응답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은 2004년 4월 1일 기준 전국(제주도 제외)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추출과정은 중2 패널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총 응답 사례수는 2,844명이었다. 2005년 2차년도 조사 결과는 조사대상 패널수 대비 청소년 조사 성공 사례수는 2,707명으로 95.2%의 표본유지율을 보여주었다. 학부모는 2,670명이 응답하였다. 2006년 3차년도 조사 결과는 청소년 2,672명, 부모 2,623명이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패널과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사교육 이용실태 및 효과에 대한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모형 및 변수

1) 사교육 참여 모형

사교육 참여 모형은 해당 연도에 사교육에 한번이라도 참여했는지 여부(사교육을 받았을 경우를 1, 받지 않았을 경우를 0)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 모형(binary logit model)이 사용되었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에는 성별, 거주지역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들과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등의 가족배경 변수들과 결혼가정 유무, 형제자매수 등 가족구조 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먼저 **성별**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를 1로, 남자 청소년인 경우를 0으로 측정하였다. 인구학적 변수 중 **거주지역**은 서울지역, 서울을 제외한 도시지역,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준범주로는 농촌지역이 사용되었다.

가족배경 변수들 중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은 교육년수로 측정하였으며 졸업이 아닌 경우는 절반값을 부여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조사당시의 가구소득이며 로그값을 취한 자연대수로 측정하였다. 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월평균가구소득은 “○○님 닥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기서 월

평균 소득이란 ○○님 댁에서 돈을 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 등 1년간 모든 소득을 합해서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금액을 말합니다”로 묻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은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직이나 전문직인 경우는 1, 그 외의 경우는 0으로 측정하였다.

가족구조 변수들 중에서 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온전가정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손가정**으로 보고 결손가정은 1, 온전가정은 0으로 측정하였다.

2) 사교육비 모형

사교육비 모형은 부모 설문지에서 응답한 학생 개인당 사교육비에 로그값을 취한 자연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OLS**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는 분석사례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의 독립변수들은 앞서 살펴본 사교육 참여 모형과 동일하다.

3) 학업성적 모형

학업성적 모형은 학업성적을 종속변수로 하는 **OLS**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학업성적**에 대한 측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체육, 미술, 기타 등 전 과목 반성적을 합산해 사용하였다. **KYPS**에서는 학생의 자기보고에 기초한 반등위, 학교등위, 전국규모 모의성적 등위 및 각 과목별 반성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국규모 모의고사 성적은 결측치가 절반을 넘고 반 및 학교 등위 점수는 평균 이상의 값이 높게 나타나 정규분포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과목별 성적점수를 사용하여 학업성적을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측정은 과목별 성적점수를 합산한 후 5분위값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학업성적 모형에는 앞선 사교육 참여나 사교육비 모형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변수들이 추가되었다. 이는 주로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가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된 변수들로 구성된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

는데 KYPS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로젠버그(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중 6가지 문항을 설문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사용된 문항은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등이다. 여기에서는 문항에 따라 평가의 방향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꾼 후 합산하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곧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초4 패널 1차년도(초등학교 4학년)는 .741이었고 중2 패널 1차년도(중학교 2학년)는 .734, 중2 패널 3차년도(고등학교 1학년)는 .752로 나타나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부모 애착** 역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관적 변수로 고려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는데 부모애착에 대한 문항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 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등 6가지 문항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문항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초4 패널 1차 년도는 .762이었고 중2 패널 1차 년도는 .859, 중2 패널 3차 년도는 .882로 나타나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중등 패널 자료 분석 시에는 개인적 학습시간이 추가되었다. **개인적 학습시간**은 학업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되고 있으며 사교육과의 비교를 통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KYPS는 중등 패널의 경우 과목별 개인적 학습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각 과목별 학습시간을 합산해 개인학습시간을 산출하였다.

4) 진학모형

이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 변수는 진학한 고등학교의 유형이며 다항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3개의 명목형 범주로 이루어진 고등학교 이행경로(①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진학, ② 일반고 진학, ③ 전문고 진학)이며 전문고 진학을 기준 범주로 삼을 때 로짓 모형은 $\log(\pi_1 / \pi_3)$ 과 $\log(\pi_2 / \pi_3)$ 를 사용하게 된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들은 앞서 살펴본 학업성적 모형과 동일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5) 학업 스트레스모형

이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 변수는 학업스트레스이며 OLS 회귀분석을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KYPS는 스트레스에 대한 17개의 문항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등패널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가 지겨워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이다. 초등패널의 경우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문항을 제외한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초4 패널 1차 년도는 .832였고 중2 패널 1차 년도는 .801, 중2 패널 3차 년도는 .832로 나타나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연구의 독립변수들은 앞서 살펴본 학업성적 모형과 동일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와 추세
2. 분석모형 결과
 - 1) 사교육 참여모형
 - 2) 사교육비 모형
 - 3) 학업성적 모형
 - 4) 고교진학 모형
 - 5) 학업 스트레스 모형

IV. 분석결과

1.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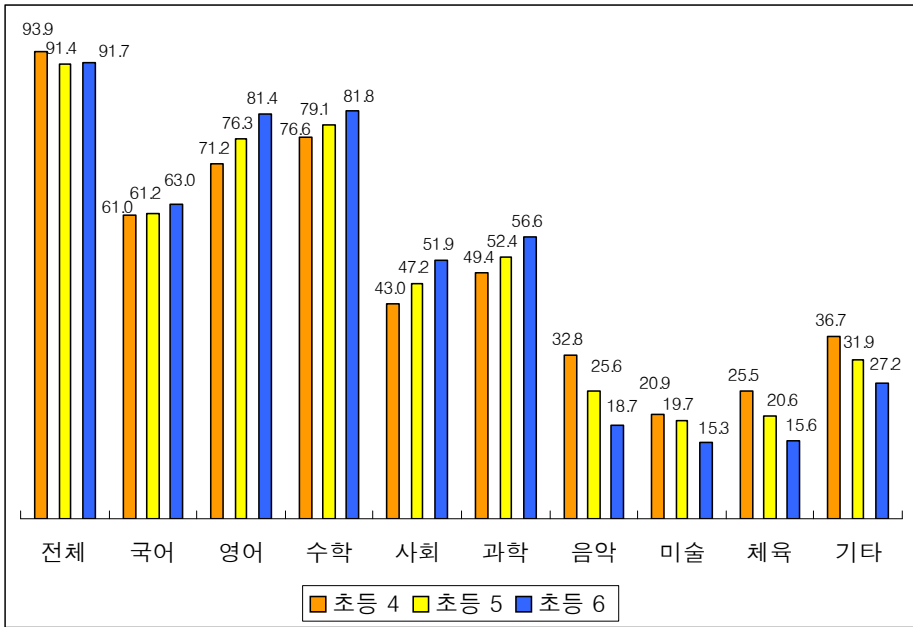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청소년들의 사교육 이용 실태와 추세를 KYPS 초등패널과 중등패널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각 년도별 결과는 가중치를 부여한 값이며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므로 사례수는 제시하지 않았고 범주형 자료의 경우 분석 결과의 빈도분포를, 연속형 자료의 경우 평균, 편차 등 기초통계치를 제시하였다.

1) 사교육 이용 실태와 추세

KYPS의 초등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먼저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여부를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사교육 참여율은 93.9%로 나타나고 있으며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사교육 참여율은 91.7%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이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다.

과목별 사교육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국·영·수 등 향후 진학과 큰 관련이 있는 주요 과목들의 사교육 이용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 과목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사교육 이용 비율은 71.2%였으나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사교육 이용 비율은 81.4%로 이 기간 동안 이용비율은 무려 10.2%p나 증가하였다.

반면, 예·체능 과목의 사교육 이용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특히 체육 과목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이용비율은 25.5%였으나 6학년이 되었을 때 체육과 관련된 사교육 이용은 10명 중 2명(15.6%)미만으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시절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의 성격이 고학년이 되었을 때 진학에 대비한 전략과목 위주로 바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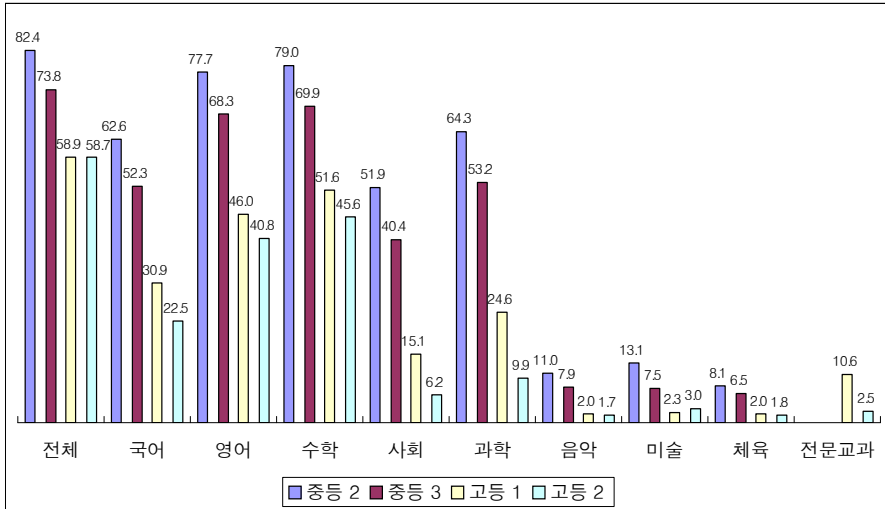
[그림 IV-1] 초등학교 3개년도 사교육 이용비율(%)

다음으로 [그림 IV-2]는 KYPS의 중등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사교육 이용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사교육 이용 비율은 82.4%에서 58.7%로 23.7%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결과와 비교해 보면, 사교육 이용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91.7%에서 중3때 73.8%로 낮아졌다가 고교 진학 후 58.9%로 크게 낮아져 중·고교 진학 등 상급학교 진학 시에 사교육 이용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과목별로 사교육 이용비율을 살펴보면, 전 교과목에서 감소추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학년별 결과와 다른 것으로 국·영·수 과목 등 전략과목의 경우에도 중학교 진학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과목 간 사교육 이용 비율을 비교해 보면, 국·영·수 과목의 사교육 이용 비율이 예·체능 과목에 비해 8-9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학년별 결

과에서 약 2-3배 내외였던 것을 염두에 본다면, 중학교 진학 이후 과목간 사교육 이용의 차이가 더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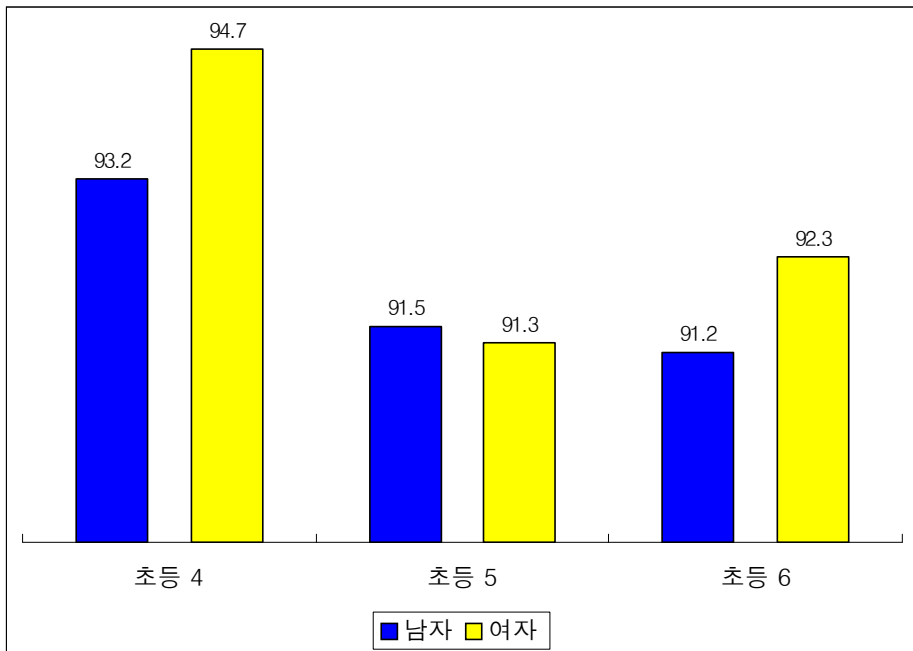
[그림 IV-2] 중·고등학교 4개년도 사교육 이용비율(%)

과목별 사교육 이용 추이를 살펴보면, 영·수 과목의 사교육 이용비율이 감소경향이 가장 더딘 반면, 사회과목의 경우 가장 빠르게 사교육 이용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과목의 사교육 이용비율은 중 2 때 77.7%에서 고2 때 40.8%로 1.9배 낮아진 반면, 사회 과목의 이용비율은 같은 기간 8.4배(51.9% → 6.2%)나 낮아졌다.

사교육 이용비율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먼저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이용비율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재확인 하였다.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사교육을 받는 과목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영·수 등 전략과목 위주로 바뀐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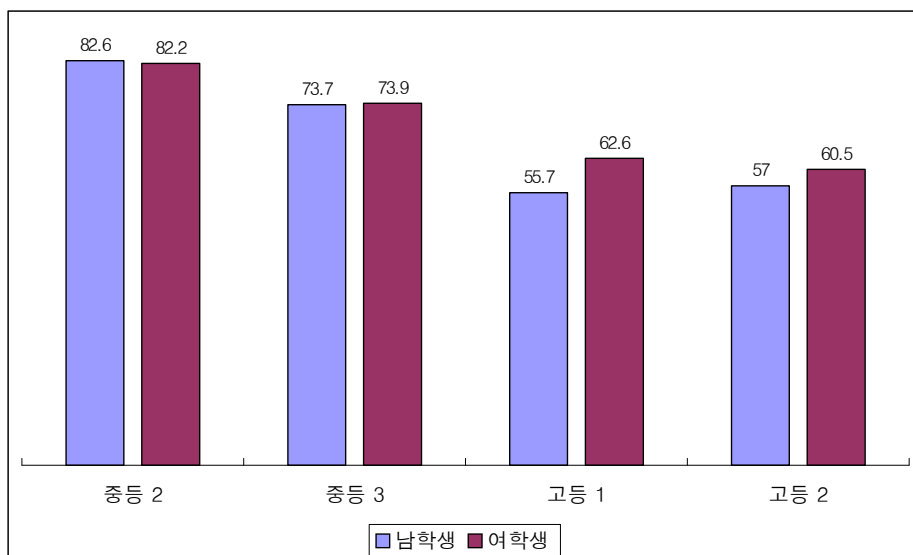
이어서 사교육 이용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IV-3]은 성별 사교육 이용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의 경우 남학생이 93.2%, 여학생이 94.7%로 여학생이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초 5 때 거의 차이가 없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여학생이 92.3%로 남학생(91.2%)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약간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V-3] 초등학교 3개년도 성별 사교육 이용 비율(%)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의 경우도 성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교 진학 후 성별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일 때 남학생들 중 57.0%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비해서 여학생은 62.6%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를 종합해 보면, 남녀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 더 사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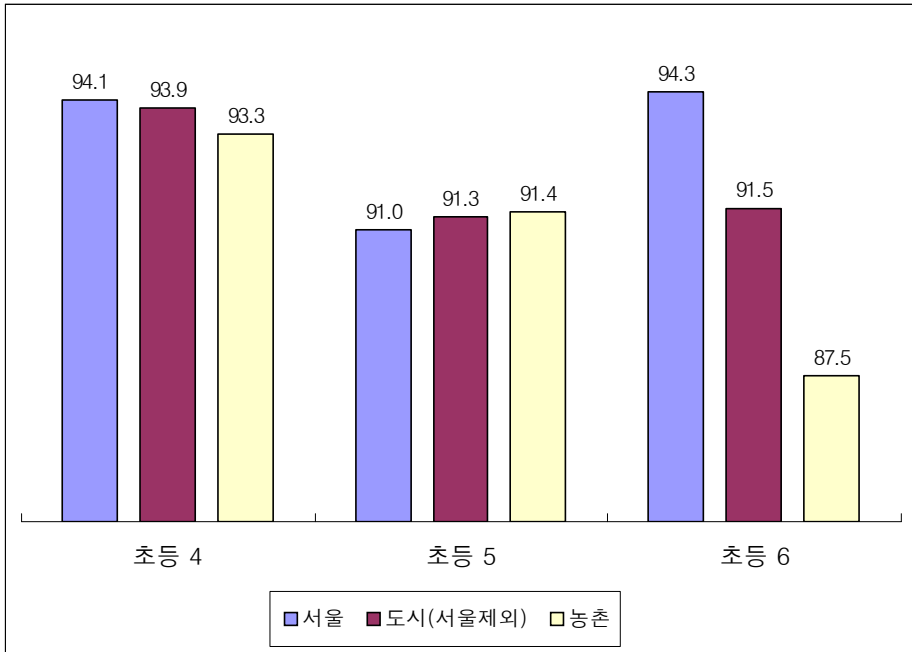


[그림 IV-4] 중·고등학교 4개년도 성별 사교육 이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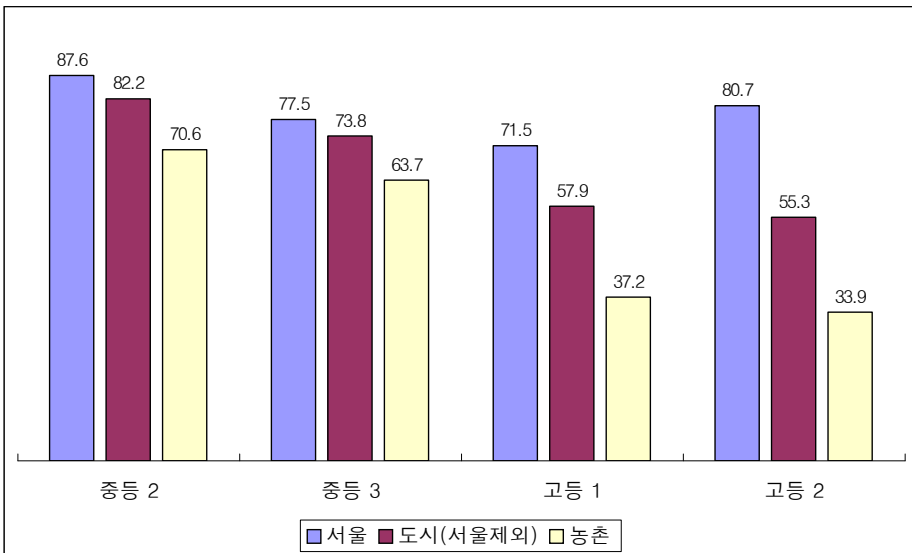
다음으로 지역별 사교육 이용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일 때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지역별 차이가 보다 분명해 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사교육 이용비율은 94.3%인데 비해서 서울을 제외한 도시지역은 91.5%, 농촌지역은 87.5%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간 격차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갔을 때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림 IV-6]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일 때 지역간 사교육 이용 비율은 서울지역이 87.6%인데 비해 농촌지역은 70.6%로 17.0%p나 서울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고교 진학 후 더 벌어져서,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서울(80.7%)이 농촌(33.9%)보다 무려 46.8%p나 사교육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이용 여부에 있어서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고1에서 고2로 올라갈 때 다른 지역처럼 사교육 이용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지역의 사교육 이용비율은 학년이 올라가도 감소하지 않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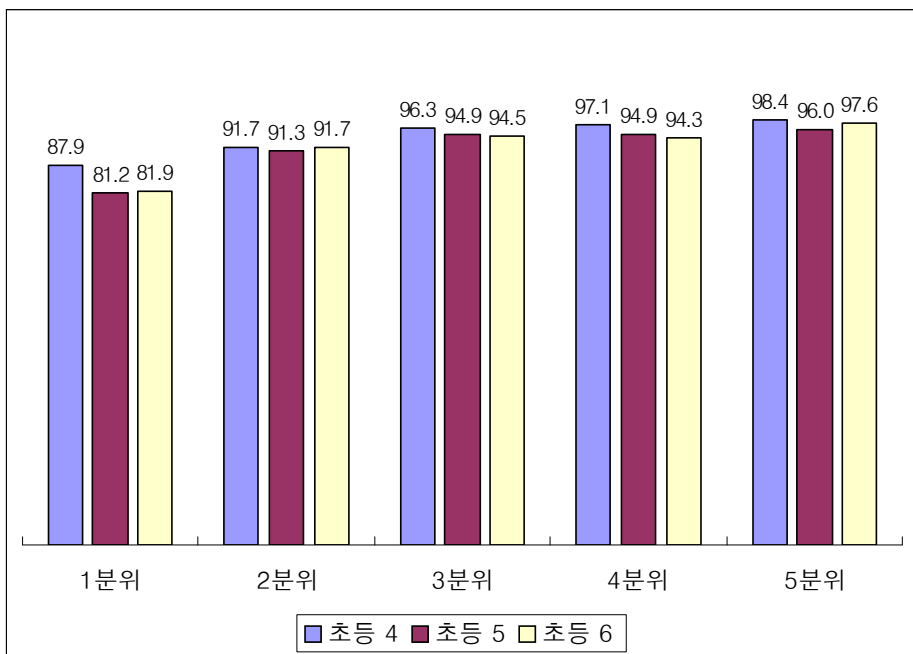
[그림 IV-5] 초등학교 3개년도 지역별 사교육 이용 비율(%)



[그림 IV-6] 중·고등학교 4개년도 지역별 사교육 이용 비율(%)

학교성적별로는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림 IV-7]은 성적 5분위로 사교육 이용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최하위 성적군(1분위)은 87.9%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최상위 성적군(5분위)은 거의 전원에 해당하는 98.4%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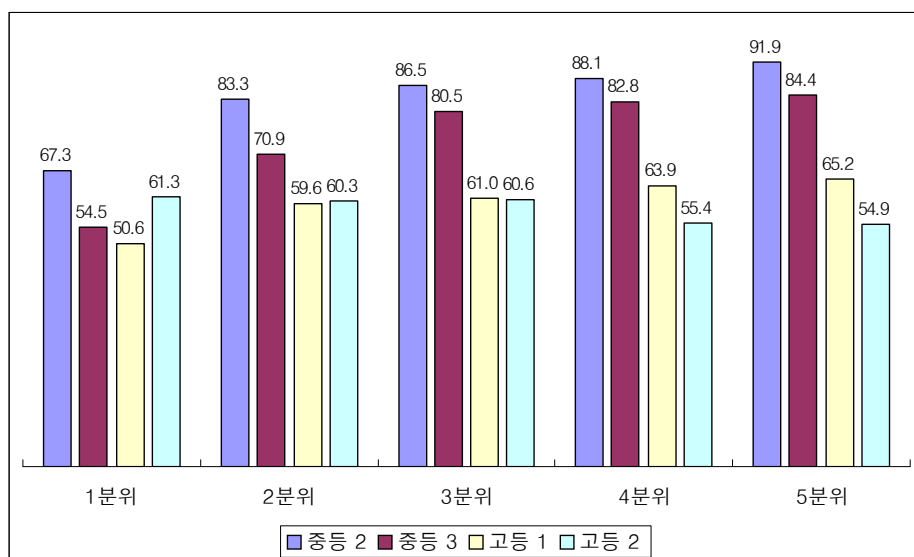
다음으로 연간 변화를 살펴보면 최하위 성적군의 경우 초4에서 초6까지 사교육 이용비율이 감소(87.9% → 81.2% → 81.9%)한데 비해 최상위 성적군은 학년이 올라가도 사교육 이용비율이 거의 감소하지 않고 있다.



[그림 IV-7] 초등학교 3개년도 학교성적별 사교육 이용 비율(%)

학교성적별 사교육 이용 비율의 추이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림 IV-8]은 중 2에서 고2까지 학교성적별 사교육 이

용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학교성적별 사교육 이용 비율은 판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 때는 최하위 성적군보다 최상위 성적군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서 고등학교 때는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 2 때 최하위 성적군의 사교육 이용 비율은 67.3%인데 비해서 최상위 성적군은 91.9%가 사교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고 2 때는 최하위 성적군 학생들의 61.3%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데 비해서 최상위 성적군 학생들은 54.9%만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8] 중·고등학교 4개년도 학교성적별 사교육 이용 비율(%)

이어서 가정환경에 따른 사교육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결손 가정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결손가정의 자녀일 경우 사교육 이용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 초 4 때 양부모 가정이 결손가정에 비해 9.0%p 사교육을 덜 받고 있었으나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그 차이는 13.3%p로 늘어났다.

<표 IV-1> 초등학교 3개년도 집안 환경과 사교육 여부(%)

유형	구분	1차년도 (초등 4)		2차년도 (초등 5)		3차년도 (초등 6)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부모유무	양부모	5.8	94.2	8.2	91.8	7.9	92.1
	결손가정	14.8	85.2	17.8	82.2	21.2	78.8
부친직업	관리전문직	3.3	96.7	4.7	95.3	2.0	98.0
	기타	6.5	93.5	9.2	90.8	9.3	90.7
아버지 교육년수		12.08	13.86	12.50	13.85	12.09	13.85
어머니 교육년수		11.36	12.97	11.85	12.95	11.80	12.92
가구소득		211.61	307.65	228.89	316.43	230.19	340.88
형제자매수		1.30	1.11	1.20	1.10	1.20	1.11

부친직업이 관리전문직인지 여부로 비교해 볼 때도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리전문직의 자녀는 초 4 때 96.7%가 사교육을 받은 데 비해서 기타 직업인 경우는 93.5%가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관리전문직의 자녀 중 98.0%가 사교육을 받는데 비해서 기타 직업인 경우 90.7%가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년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사교육을 받은 경우 부친의 교육년수는 13.9년인데 반해 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부친의 교육년수는 12.1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의 교육년수도 마찬가지로 전자는 13.0년, 후자는 11.4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자녀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가구소득은 초 4 때 307.7만원인데 비해서 받지 않는 경우 가구소득은 211.6만원에 머물고 있다.

형제자매수는 초 4 때 사교육을 받은 경우 1.11명인데 비해 받지 않는 경우 1.30명으로 형제자매수가 적을수록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 중·고등학교 4개년도 집안 환경과 사교육 여부

유형	구분	1차년도 (중등 2)		2차년도 (중등 3)		3차년도 (고등 1)		4차년도 (고등 2)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부모유무	양부모	15.7	84.3	23.9	76.1	39.3	60.7	40.1	59.9
	결혼 가정	47.4	52.6	61.0	39.0	72.7	27.3	68.2	31.8
부친직업	관리 전문직	9.6	90.4	14.2	85.8	23.3	76.7	22.2	77.8
	기타	18.9	81.1	27.8	72.2	43.4	56.6	43.6	56.4
아버지 교육년수		11.8	13.6	12.0	13.6	12.2	13.9	12.0	14.1
어머니 교육년수		10.9	12.5	10.7	12.8	11.3	12.7	11.2	12.8
가구소득		2213	3174	2299	3251	2485	3385	2557	3723
형제자매수		1.3	1.1	1.2	1.1	1.2	1.1	1.2	1.1

<표 IV-2>는 중·고등학교 때 가정형편에 따른 사교육 이용 여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결혼가정이거나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이 아닐 때,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구소득이 낮을 때,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사교육 이용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사교육 과목수 실태 및 추세

KYPS 초등패널자료와 중등패널자료는 과목별 사교육 이용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몇 과목이나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알 수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몇 과목이나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평균 4.4개, 5학년일 때 평균 4.5개, 6학년일 때 4.5개의 과목에 대해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 보면 과목수의 증가는 두드러지고 있지 않으며 초등학교생들의 경우 대략 4-5과목에 대해서 사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 초등학교 3개년도 사교육 과목수 (단위 : %)

과목수	1차년도 (초등 4)	2차년도 (초등 5)	3차년도 (초등 6)
1	9.2	8.1	7.0
2	11.5	11.6	12.4
3	13.5	11.6	11.1
4	14.9	13.5	10.0
5	19.8	26.1	33.2
6	13.8	14.5	14.1
7	8.1	6.3	6.4
8	4.8	3.8	3.7
9	3.8	4.6	2.1

<표 IV-3>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과목수별 이용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4-6학년의 경우 공통적으로 5개 과목을 듣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있다. 그 분포는 점차 상승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일 때 5개 과목을 듣는 비중은 19.8%였으나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비중은 33.2%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중2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중2부터 고2까지의 사교육 이용 과목수를 살펴보면, 중2 때는 평균 4.5개, 중3 때는 4.1개, 고1 때는 2.1개, 고2 때는 2.2개로 나타나 고등학교 진학이후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과목수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 중·고등학교 4개년도 사교육 과목수 (단위 : %)

과목수	1차년도 (중등 2)	2차년도 (중등 3)	3차년도 (고등 1)	4차년도 (고등 2)
1	5.1	7.9	61.1	32.2
2	12.3	15.6	13.3	29.6
3	7.6	9.3	7.8	19.9
4	13.0	13.2	5.4	15.3
5	48.6	44.4	9.1	2.5
6	2.6	1.4	1.0	0.3
7	3.1	1.3	2.1	0.1
8	7.7	6.9	0	0
9	0	0	0	0

<표 IV-4>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과목수별 이용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 2학년일 때는 초등학교 결과와 마찬가지로 5개 과목을 듣는 비중이

48.6%로 가장 높았다. 반면 고교 진학 후 사교육을 받는 과목수는 크게 바뀌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일 때는 1과목만을 받는 비중이 61.1%로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 2가 되었을 때는 1과목(32.2%)이나 2과목(29.6%)을 받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패널자료와 중등패널자료의 사교육 과목수 현황을 종합해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평균 4과목 이상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진학 후 평균 과목수는 2개로 줄어든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사교육시간의 실태 및 추세

지금까지 살펴본 사교육 이용여부가 질적 차이를 말해준다면 사교육 이용시간은 양적 차이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표 IV-5>는 초등학교 4학년에 서 6학년까지 사교육 이용시간의 변화추세를 과목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 IV-5> 초등학교 3개년도 사교육 시간 (단위 : 분)

과목명	1차년도 (초등 4)	2차년도 (초등 5)	3차년도 (초등 6)
국어	150.98	168.82	156.47
영어	167.83	196.23	222.02
수학	167.03	196.89	214.00
사회	151.92	165.21	140.06
과학	142.17	156.89	139.68
음악	175.15	176.94	175.53
미술	130.66	149.11	242.16
체육	196.83	188.50	282.38
기타	150.24	149.16	148.78

먼저 사교육시간이 가장 긴 과목은 체육으로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일주일 평균 3시간 이상인 196.8분으로 나타났다. 가장 짧은 과목은 미술로 일주일 평균 2시간(130.7분)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이용시간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한 경우는 영어, 수학, 미술, 체육 과목 등이었다.

<표 IV-6> 중·고등학교 4개년도 사교육 시간 (단위 : 분)

과목명	1차년도 (중등 2)	2차년도 (중등 3)	3차년도 (고등 1)	4차년도 (고등 2)
국어	184.1	192.3	201.8	218.8
영어	245.1	245.0	231.0	243.0
수학	244.1	247.3	247.7	257.2
사회	156.2	164.8	159.9	202.0
과학	178.8	183.7	180.0	212.2
음악	135.9	129.2	282.4	383.9
미술	136.9	163.7	411.3	776.5
체육	130.4	153.7	299.0	437.0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때 과목별로 사교육 이용시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학교 때 사교육시간은 영어, 수학 과목이 가장 길고 예체능 과목이 가장 짧았으나 고등학교 때 사교육시간 중 가장 긴 것은 미술과목으로 776.5분으로 일주일 평균 13시간에 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영·수 과목으로 사교육 이용시간이 짧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교 진학 후 예체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나타나면서 이 과목들에 대한 사교육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성별로 사교육시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7>은 과목별로 성별 사교육시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사교육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예체능 과목의 경

우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교육시간이 길었다. 특히 체육과목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여학생의 사교육 이용시간은 일주일 평균 363.9분인데 비해 남학생은 229.6분으로 2시간 반가량 길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7〉 초등학교 3개년도 성별 사교육 시간 비교 (단위 : 분)

유형	1차년도 (초등 4)		2차년도 (초등 5)		3차년도 (초등 6)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국어	158.50	142.26	170.39	166.97	156.40	156.54
영어	170.91	164.58	196.21	196.24	223.70	220.21
수학	174.75	158.51	200.71	192.52	216.85	210.83
사회	156.28	146.85	167.08	162.97	139.00	141.26
과학	146.08	137.50	156.64	157.18	140.17	139.12
음악	155.87	188.62	171.59	181.03	161.03	184.43
미술	121.16	139.28	142.55	154.97	202.35	270.43
체육	211.53	166.20	198.85	169.48	229.62	363.87
기타	159.36	140.39	150.85	147.20	161.43	135.69

중·고등학교 때 성별 사교육 이용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사교육시간은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예체능 과목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길게 나타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표 IV-8〉 중고등학교 4개년도 성별 사교육 시간 비교 (단위 : 분)

유형	1차년도 (중등 2)		2차년도 (중등 3)		3차년도 (고등 1)		4차년도 (고등 2)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국어	186.1	181.7	194.6	189.4	208.1	194.3	226.5	209.5
영어	246.5	243.4	240.3	250.5	240.4	220.3	250.4	234.1
수학	245.7	242.2	247.3	247.3	260.6	233.9	266.3	246.1
사회	160.0	151.1	168.2	160.2	169.2	149.1	208.1	195.6
과학	182.7	174.2	189.7	176.3	189.2	168.4	212.7	211.3
음악	117.4	160.4	114.5	146.5	277.7	285.8	584.0	253.9
미술	117.4	162.6	113.0	222.3	238.0	479.5	628.7	823.7
체육	132.0	127.6	162.2	139.5	290.7	316.6	432.6	452.8

지역별 사교육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4학년일 때 농촌지역의 사교육 시간이 서울지역보다 길게 나타난 반면, 초등학교 6학년일 때는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 과목의 경우 초 4 때 서울지역의 사교육 시간은 일주일 평균 161.3분인데 비해 농촌지역은 149.6분으로 20분가량 짧았다. 반면 다른 과목은 모두 농촌지역의 사교육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례로 국어 과목의 경우 서울지역은 119.5분인데 비해 농촌지역은 180.2분으로 1시간가량 길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사회와 과학 과목을 제외하고 서울지역의 사교육 이용시간이 농촌지역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영어 과목의 경우 서울지역은 261.3분인데 비해 농촌지역은 170.4분으로 서울지역이 1시

간 반 가량 사교육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9> 초등학교 3개년도 지역별 사교육 시간 비교 (단위 : 분)

유형	1차년도 (초등 4)			2차년도 (초등 5)			3차년도 (초등 6)		
	서울	도시 (서울 제외)	농촌	서울	도시 (서울제 외)	농촌	서울	도시 (서울 제외)	농촌
국어	119.45	154.63	180.19	138.34	176.86	165.44	161.92	156.48	144.60
영어	161.34	171.76	149.59	193.57	199.80	170.99	261.30	216.07	170.37
수학	157.82	170.12	162.73	188.12	201.92	174.94	254.96	206.51	173.35
사회	118.67	155.92	161.75	131.57	174.04	152.32	135.14	140.95	141.77
과학	107.07	148.00	150.66	120.04	166.18	150.96	135.97	140.44	141.21
음악	164.24	173.91	205.73	150.08	177.92	224.93	156.27	183.92	156.15
미술	113.86	132.26	154.28	145.50	150.30	148.87	132.18	295.47	128.53
체육	168.66	204.17	206.92	154.91	198.40	188.82	187.58	332.64	186.75
기타	136.33	151.59	171.07	129.71	154.73	154.06	141.95	151.69	141.50

<표 IV-10>은 중·고등학교 때 과목별 지역간 사교육 시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중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거의 모든 과목에서 서울지역의 사교육시간이 농촌지역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국·영·수 과목 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영어 과목으로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서울지역 학생들의 영어 과목 사교육시간은 269.0분인데 비해 농촌지역은 203.5분으로 약 1시간가량 서울지역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시기 국어와 수학 과목은 서울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서 각각 25.9분(서울:농촌=233.6:207.7), 26.8분(286.8:260.0) 길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0> 중·고등학교 4개년도 지역별 사교육 시간 비교 (단위 : 분)

	지역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전문 교과
1차년 도 (중등2)	서울	181.5	253.8	252.1	141.5	180.2	154.0	154.0	160.3	-
	도시 (서울제외)	184.4	243.8	242.8	157.2	176.5	130.1	130.1	120.1	-
	농촌	190.0	232.2	232.9	196.1	205.1	165.9	180.7	179.1	-
2차년 도 (중등3)	서울	200.7	253.2	256.7	174.1	195.2	176.5	259.0	165.8	-
	도시 (서울제외)	190.7	245.5	246.7	163.0	180.4	114.2	149.5	156.7	-
	농촌	180.1	212.6	223.9	162.2	188.0	179.3	98.4	103.6	-
3차년 도 (고등1)	서울	234.3	267.2	300.7	165.6	192.2	225.0	395.6	367.2	285.9
	도시 (서울제외)	187.4	218.7	230.1	159.7	176.2	302.2	415.1	291.7	347.6
	농촌	182.7	210.5	231.7	100.5	140.7	306.8	463.0	277.4	210.8
4차년 도 (고등2)	서울	233.6	269.0	286.8	229.2	247.2	552.2	1,001.9	378.0	399.6
	도시 (서울제외)	210.0	232.3	244.9	181.7	196.6	358.7	673.9	469.0	317.8
	농촌	207.7	203.5	260.0	229.7	267.0	267.2	540.0		531.0

<표 IV-11>은 학교성적별로 사교육 시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최상위 성적군과 최하위 성적군간의 차이는 먼저 영어·수학의 경우 최상위 성적군의 사교육 이용시간이 최하위 성적군 학생들보다 길었던 반면 예·체능 과목의 사교육 시간은 최하위 성적군 학생들이 최상위 학생들보다 길었다.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최상위 성적군의 영어 사교육 시간은 183.2분인데 비해 최하위 성적군 학생은 145.1분에 머물고 있다. 반대로 체육 사교육 시간은 최상위 성적군 학생이 206.7분인데 비해서 최하위 성적군 학생은 211.6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최상위 성적군 학생의 영어와 체육 사교육 시간은 258.4분과 347.3분인데 비해 최하위 성적군 학생은 199.4분과 402.3분으로, 영어는 최상위 성적군 학생들보다 1시간가량 짧은 반면, 체육은 10분가량 길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1> 초등학교 3개년도 성적별 사교육 시간 비교 (단위 : 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기타
1차년도 (초등 4)	1분위	148.82	145.13	160.42	134.16	132.38	164.40	118.98	211.57	152.41
	2분위	155.05	166.79	177.62	161.92	150.52	163.61	131.73	172.15	142.07
	3분위	141.83	169.96	159.07	148.45	138.23	192.21	134.30	193.42	145.54
	4분위	153.73	153.73	172.49	155.78	144.52	174.48	126.47	203.21	134.28
	5분위	155.53	183.19	175.13	166.64	149.66	169.69	130.23	206.66	168.00
2차년도 (초등 5)	1분위	173.89	185.36	196.31	169.61	161.98	174.8	162.3	187.5	160.5
	2분위	161.73	191.16	190.36	154.17	148.3	184.7	143.9	175.3	145.9
	3분위	176.06	188.19	201.46	170.43	160.0	174.2	157.6	201.3	136.5
	4분위	171.17	202.92	199.73	175.16	167.7	171.6	150.4	197.1	162.2
	5분위	165.05	219.86	200.61	162.67	150.8	176.3	140.3	180.0	148.2
3차년도 (초등 6)	1분위	151.20	199.40	194.72	136.5	135.4	168.2	422.3	402.3	145.4
	2분위	157.15	210.67	205.04	138.3	137.4	160.2	213.2	181.0	145.4
	3분위	158.64	218.52	208.03	143.1	140.3	179.8	206.2	292.4	147.3
	4분위	151.61	229.94	214.14	138.6	139.6	195.9	141.0	196.5	143.8
	5분위	163.03	258.42	249.32	142.8	144.9	166.8	288.3	347.3	159.0

<표 IV-12>를 통해 중·고등학교 때 학업성적별 사교육 시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우 특징적인 것은 영어와 수학과목의 사교육 변화 추이다. 중학교까지 상위권 학생들은 수학보다는 영어 과목의 사교육시간이 긴 반면 하위권 학생들은 수학과목의 사교육시간이 길었다. 고교 진학 후 영어와 수학과목 중 사교육 시간이 긴 것은 학업성적과 상관없이 수학 과목이다.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최하위 성적군의 영어와 수학과목 사교육시간은 각각 226.5분, 247.0분으로 수학과목의 사교육 시간이 길었고 최상위 성적군도 동일한 경우 246.8분, 268.7분으로 수학과목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2〉 중·고등학교 4개년도 성적별 사교육 시간 비교 (단위 : 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전문교과
1차년도 (중등 2)	1분위	183.4	219.4	220.3	163.0	175.1	107.9	113.7	147.0	-
	2분위	188.6	237.8	241.5	157.5	175.7	146.4	146.4	123.8	-
	3분위	187.5	246.7	248.2	160.3	179.3	127.5	127.5	119.3	-
	4분위	180.4	250.5	253.2	150.0	180.4	147.6	147.6	115.7	-
	5분위	179.8	270.9	257.1	149.9	184.2	145.4	145.4	145.4	-
2차년도 (중등 3)	1분위	196.5	217.6	233.0	169.1	179.5	138.8	184.7	222.6	-
	2분위	189.1	231.4	237.4	160.7	180.4	94.6	139.7	134.0	-
	3분위	195.4	239.9	244.0	175.7	188.6	155.8	158.2	113.7	-
	4분위	196.0	263.9	254.3	171.4	187.4	125.7	145.5	138.7	-
	5분위	187.2	265.2	264.3	149.2	182.8	133.8	199.2	120.2	-
3차년도 (고등 1)	1분위	210.0	220.8	230.0	172.8	174.5	102.7	242.7	272.4	286.1
	2순위	194.8	223.5	234.4	155.5	170.7	242.8	413.7	303.1	369.7
	3분위	192.7	231.3	246.1	142.0	162.8	280.1	413.8	182.1	221.3
	4순위	218.1	244.6	263.1	176.9	192.3	317.6	561.2	432.4	253.5
	5순위	189.4	231.5	262.8	142.5	185.7	256.3	432.5	230.4	409.3
4차년도 (고등 2)	1분위	211.4	226.5	247.0	234.9	192.9	582.1	863.0	636.0	367.8
	2순위	217.3	250.0	263.9	189.1	241.2	374.6	809.0	445.2	461.8
	3분위	207.7	239.9	251.1	150.8	200.4	287.7	870.1	306.9	426.7
	4순위	223.2	246.3	254.2	229.4	237.4	238.2	774.2	458.4	307.3
	5순위	227.9	246.8	268.7	185.3	177.4	512.2	449.1	351.2	196.3

다음으로 결손가정 유무에 따른 사교육 이용시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13>은 초등학교 3개년도별로 결손가정 유무에 따른 사교육이용시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거의 모든 과목에서 학년 변화에 상관없이 결손가정 자녀의 사교육 이용시간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국어 과목의 경우 6학년일 때 결손가정 자녀의 사교육 이용시간이 169.9분으로 양부모

가족 자녀(156.0분)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및 과학 과목도 초등학교 6학년일 때 결손가정 자녀의 사교육이용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3> 초등학교 3개년도 결손가정 유무와 사교육 시간 (단위 : 분)

과목명	1차년도 (초등 4)		2차년도 (초등 5)		3차년도 (초등 6)	
	양부모	결손가정	양부모	결손가정	양부모	결손가정
국어	151.5	135.1	169.4	159.9	156.0	169.9
영어	168.7	123.9	196.4	217.5	223.3	172.9
수학	167.9	141.6	196.6	198.2	214.6	204.8
사회	152.7	133.2	166.2	137.5	139.8	148.0
과학	142.8	118.5	157.5	137.3	139.4	145.0
음악	175.5	157.4	177.6	161.7	176.2	153.2
미술	131.4	84.4	151.0	82.4	245.8	94.5
체육	196.0	229.2	186.2	210.8	287.0	164.9
기타	150.6	131.9	148.5	181.6	150.4	70.6

<표 IV-14>는 중·고등학교 때 결손가정 유무에 따른 사교육시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체육을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 결손가정 자녀의 사교육시간이 부모님이 다 계시는 양부모 자녀에 비해 길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 이용여부와 결부해 살펴본다면 결손가정 자녀 중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양부모 가정의 자녀에 비해 낮지만 사교육을 받는 결손가정 자녀들의 사교육 이용시간은 고 2때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길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14> 중·고등학교 4개년도 결손가정 유무와 사교육 시간 (단위 : 분)

과목명	1차년도 (중등 2)		2차년도 (중등 3)		3차년도 (고등 1)		4차년도 (고등 2)	
	양부모	결손가정	양부모	결손가정	양부모	결손가정	양부모	결손가정
국어	184.3	178.3	193.4	168.7	202.2	175.2	218.2	249.4
영어	245.8	226.3	246.6	205.8	230.8	235.7	242.1	281.0
수학	244.8	224.1	249.0	211.2	245.8	325.8	257.6	260.6
사회	156.0	161.6	165.6	141.3	160.9	116.6	202.9	234.8
과학	178.5	187.9	185.0	160.7	180.1	145.2	211.5	330.8
음악	135.0	150.6	131.9	105.3	278.2	591.4	380.0	1,080.0
미술	136.2	150.6	169.2	122.6	419.1	180.0	773.1	2,160.0
체육	129.7	139.5	154.0	170.1	295.0	390.1	463.1	246.4
전문교과	-	-	-	-	321.7	473.0	340.1	497.5

다음으로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사교육 이용시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15>는 초등학교 4-6학년일 때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교육 이용시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국·영·수 과목을 살펴보면 국어 과목은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인 경우보다 기타 직업인 경우가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서 영어 과목은 관리전문직인 경우가 길게 나타나고 있다.

국·영·수 이외의 과목의 경우 학년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인 경우보다 기타 직업일 때 사교육 이용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사회과목의 경우 초 4 때 관리전문직인 경우 144.0분인데 비해 기타 직업인 경우는 152.8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5〉 초등학교 3개년도 아버지 직업과 사교육 시간 (단위 : 분)

과목명	1차년도 (초등 4)		2차년도 (초등 5)		3차년도 (초등 6)	
	관리 전문직	기타	관리 전문직	기타	관리 전문직	기타
국어	122.3	155.2	138.7	172.5	143.4	158.3
영어	174.1	166.7	203.3	195.0	251.1	217.2
수학	164.5	167.4	176.5	199.9	226.5	212.0
사회	144.0	152.8	146.1	167.3	129.1	141.4
과학	135.3	143.1	135.6	159.5	138.3	139.9
음악	188.9	172.3	163.2	179.8	156.6	179.6
미술	129.2	131.0	151.7	148.7	138.1	263.9
체육	202.2	196.0	189.1	188.4	175.6	300.5
기타	157.1	149.0	160.2	147.1	159.1	146.7

이어서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 직업별 사교육 이용시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인 경우 영어와 수학, 미술과목의 사교육 이용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다른 과목에서는 기타 직업인 경우가 더 긴 사교육 이용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 일 때 관리전문직 자녀의 영어 사교육시간은 244.0분이고 국어 사교육시간은 213.0분인데 비해 기타 직업 자녀의 사교육시간은 같은 경우 242.8분, 220.1분으로 전자는 짧은 대신 후자는 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IV-16> 중·고등학교 4개년도 아버지 직업과 사교육 시간 (단위 : 분)

과목명	1차년도 (중등 2)		2차년도 (중등 3)		3차년도 (고등 1)		4차년도 (고등 2)	
	관리 전문직	기타	관리 전문직	기타	관리 전문직	기타	관리 전문직	기타
국어	191.0	182.9	189.9	192.6	201.1	201.9	213.0	220.1
영어	272.8	240.0	259.1	242.8	233.4	230.5	244.0	242.8
수학	261.2	240.9	254.8	246.2	253.6	246.6	277.8	253.4
사회	155.9	156.3	165.8	164.6	158.5	160.1	212.2	200.1
과학	184.7	177.8	187.9	183.2	193.0	177.5	214.8	211.5
음악	148.1	133.7	88.2	134.2	140.4	290.1	220.0	396.0
미술	148.1	134.9	204.4	157.8	478.6	397.2	862.2	748.6
체육	104.0	134.3	120.8	156.3	368.1	292.7	720.0	433.1
전문교과	-	-	-	-	320.9	331.4	262.1	353.9

이제 마지막으로 고교 진학 이후 학교유형별 사교육 이용시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1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은 예·체능 과목에 대해 거의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고나 전문고(전 실업고)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2학년일 때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학생의 영어 사교육시간은 274.7분인데 비해 일반고는 241.6분, 전문고는 238.4분으로 가장 길었고 수학 역시 각각 273.0분, 256.3분, 258.4분 등으로 나타나 특

목고/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의 사교육 이용시간이 가장 길었다.

〈표 IV-17〉 중·고등학교 4개년도 고등학교 계열과 사교육 시간(단위 : 분)

	지역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전문 교과
3차년도 (고등1)	특목/자립형 사립고	216.5	295.8	315.3	180.8	287.0	-	-	-	-
	일반고	201.5	232.1	247.7	159.3	178.0	242.5	399.7	230.5	60.0
	전문고 (실업고)	177.6	169.2	196.0	147.0	158.2	96.4	379.6	294.0	335.1
4차년도 (고등2)	특목/자립형 사립고	254.1	274.7	273.0	217.9	277.8	-	780.0	-	-
	일반고	214.6	241.6	256.3	201.2	213.0	371.7	766.4	450.0	359.6
	전문고 (실업고)	237.0	238.4	258.4	125.3	127.6	502.3	976.6	441.2	3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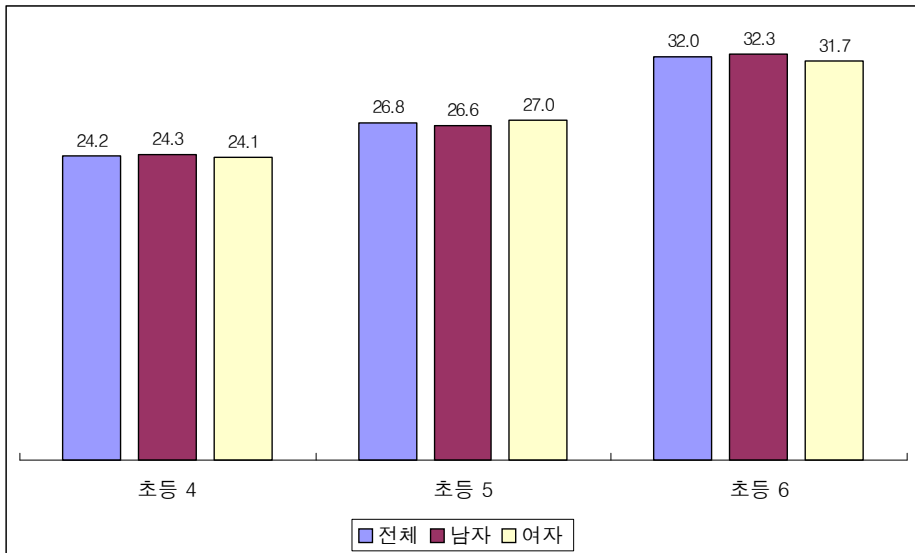
이어서 일반고와 전문고를 비교해 보면, 국어, 영어와 수학의 경우 고1 때는 일반고 학생들의 사교육시간이 길었으나 고등학교 2학년 일 때 국·영·수 과목의 사교육시간은 영어를 제외하고 전문고 학생들의 경우가 약간 길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사회과목과 과학과목의 경우 학년 변화와 상관없이 일반고 학생들의 사교육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4) 사교육비 실태 및 추세

선행연구들에서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학년별 추세는 이용비율과는 반대로 증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KYPs의 경우 사교육비는 얼마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지 학년별 양상은 어떠한지, 성별이나 지역,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라 사교육비의 실태는 어떻게 다른지 이번 절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먼저 [그림 IV-9]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사교육비의 규모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 달 평균 24.2만원 → 26.8만원 → 32.0만원으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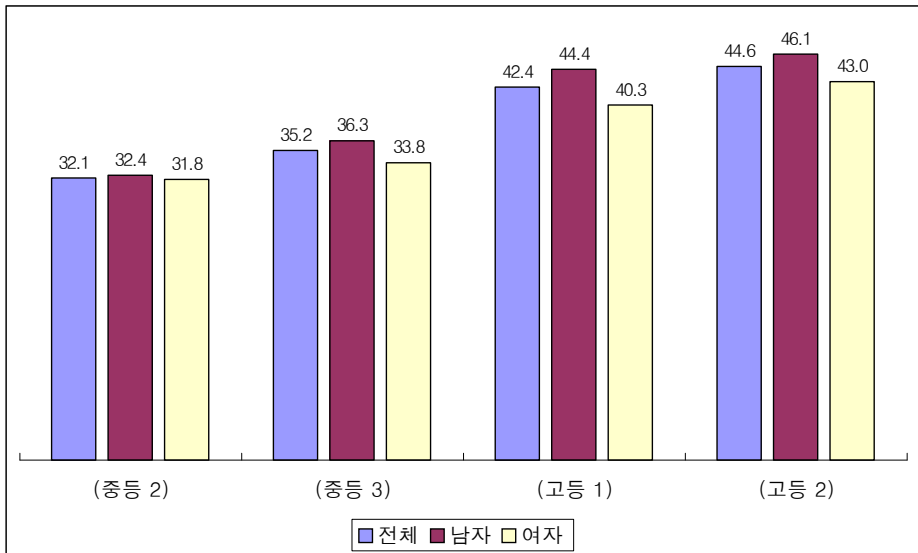
[그림 IV-9] 초등학교 3개년도 성별 한 달 평균 사교육비(만원)

성별로 보면 사교육비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초등학교 4학년일 때 남학생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24.3만원, 여학생은 24.1만원이었으며 초등학교 6학년일 때 같은 경우 32.3만원, 31.7만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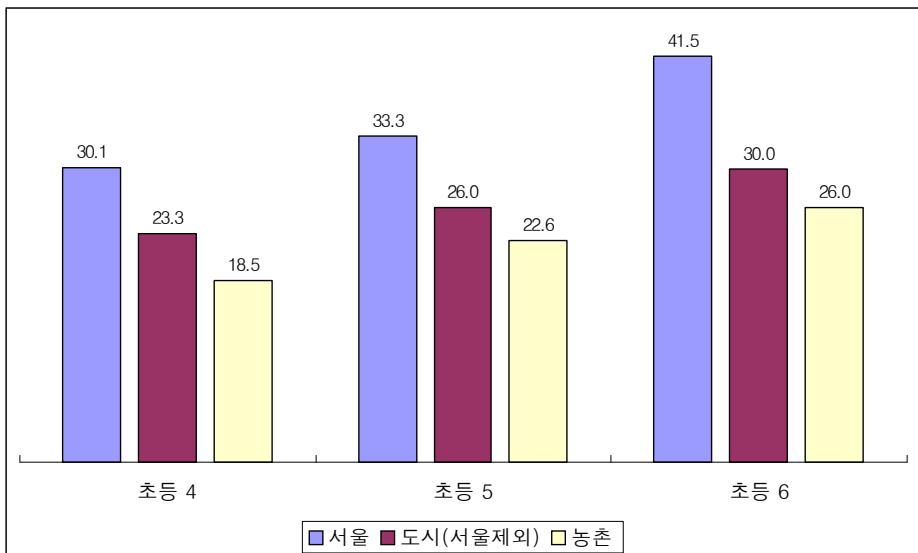
[그림 IV-10]은 중·고등학교 때의 사교육비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2학년일 때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32.1만원인데 비해서 중3 때는 35.2만원, 고1 때는 42.4만원, 고2 때는 44.6만원으로 학년별로 2만원 가량 오르고 고등학교 진학 시 7만원 가량 사교육비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의 사교육비와 중학교 때의 사교육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대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 후 사교육비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초·중학교의 경우도 학년별 증가추이로부터 유추해 볼 때 초등학교 전체 사교육비와 중학교 전체 사교육비 역

시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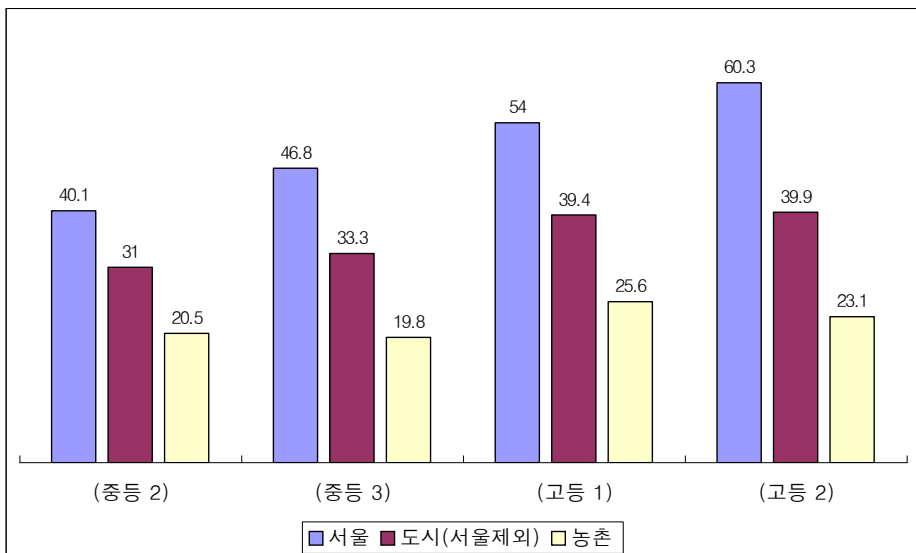
[그림 IV-10] 중·고등학교 4개년도 성별 한 달 평균 사교육비(만원)



[그림 IV-11] 초등학교 3개년도 지역별 한 달 평균 사교육비(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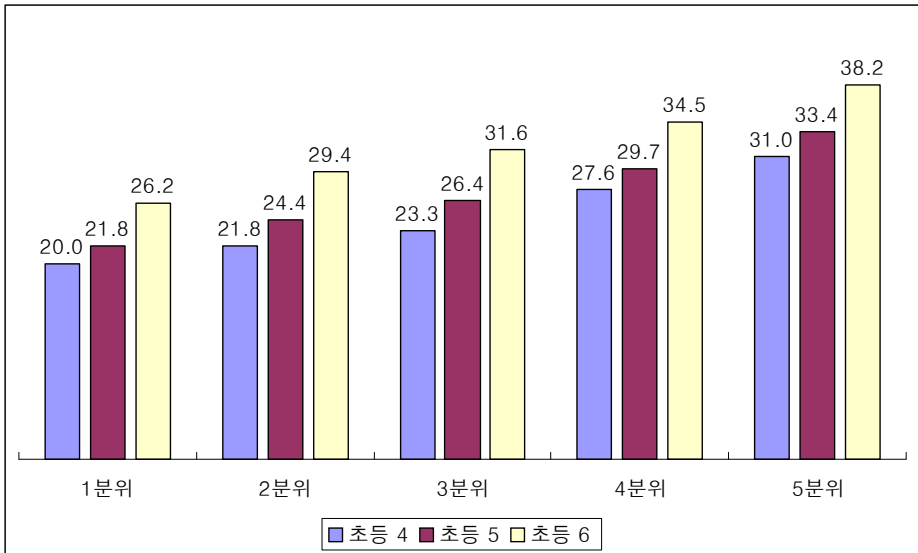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이 경우 특징적인 것은 남학생의 사교육비가 여학생보다 약간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 때 남학생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46.1만원인데 비해 여학생은 43.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사교육비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6학년일 때 서울 지역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30.1만원, 33.3만원, 41.5만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농촌지역에 비해 각각 11.6만원, 10.7만원, 15.5만원 사교육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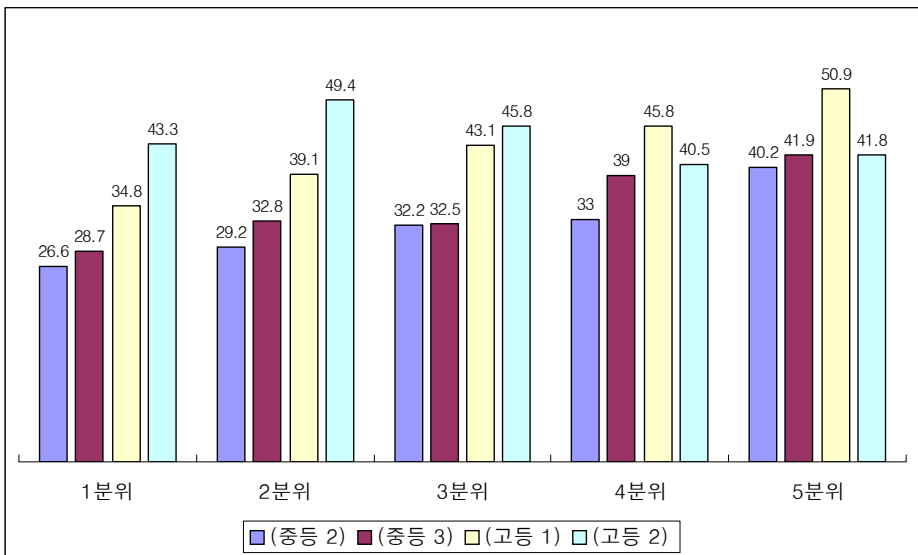


[그림 IV-12] 중·고등학교 4개년도 지역별 한 달 평균 사교육비(만원)

중·고등학교 때는 지역별 양상은 어떠한지 [그림 IV-12]를 통해 살펴보면, 서울지역과 기타 지역간의 차이는 중·고등학교 때 더 커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 2학년 일 때 서울과 농촌지역의 사교육비 차이는 19.6만원인데 비해 고등학교 2학년 일 때 그 차이는 37.2만원으로 늘어났다. 도농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별 사교육비 추세는 농촌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년이 올라가도 사교육비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IV-13] 초등학교 3개년도 학교성적별 한 달 평균 사교육비(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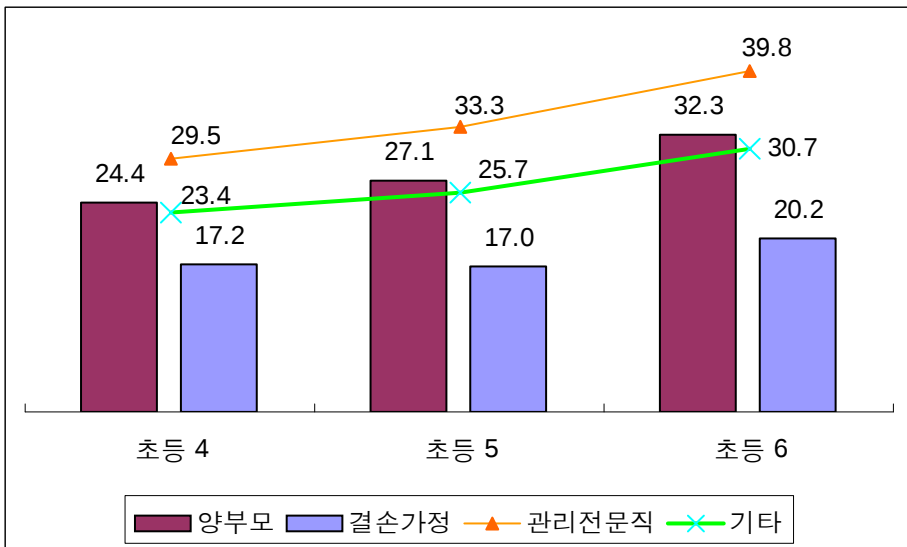


[그림 IV-14] 중·고등학교 4개년도 학교성적별 한 달 평균 사교육비(만원)

[그림 IV-13]은 초등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성적별 사교육비 추세를 보

여주고 있다. 그 결과, 모든 성적군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상위 성적군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사교육비는 26.2만인데 비해 최하위 성적군은 20.0만원으로 6.2만 원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초등학교 6학년일 때도 각각 38.2만원, 31.0만원으로 7.2만 원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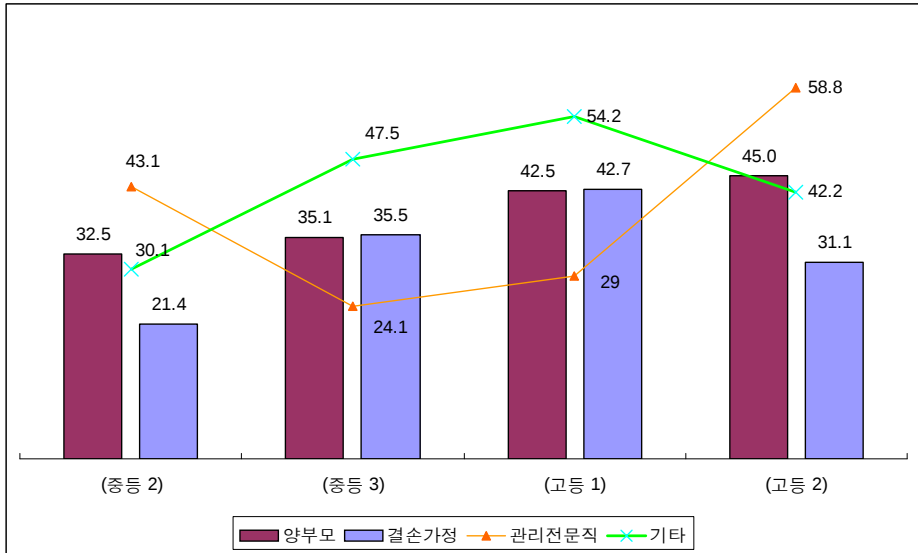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때의 학교성적별 사교육비 추세를 살펴보면, 고교 진학 후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고교 진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고1까지 사교육비가 증가하였다가 고2가 되면서부터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사교육을 받는 과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 사교육을 받는 과목수가 줄어들어 그에 따른 사교육지출이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IV-15] 초등학교 3개년도 가정형편별 한 달 평균 사교육비(만원)

이어서 가정형편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IV-15]를 통해 살펴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격차는 학년이 올라가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



[그림 IV-16] 중·고등학교 4개년도 가정형편별 한 달 평균 사교육비(만원)

[그림 IV-16]은 중·고등학교 때 가정형편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일 때 결손가정 유무나 관리전문직 유무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결손가정에 따른 구분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 아버지의 직업별로 볼 때 관리전문직보다는 기타 직업일 때의 지출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KYPs의 초등패널자료와 중등패널자료를 통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시기의 사교육 실태와 변화 추이를 살펴해보았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이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사교육 이용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나 사교육비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사교육 이용이나 과목수, 비용 등에 있어서 남녀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

다. 넷째, 지역별 차이는 특히,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서울지역의 사교육비가 기타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다섯째,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사교육 이용비율이 높고 사교육비도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분석모형 결과

1) 사교육 참여 모형

먼저 사교육 참여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교육 참여 모형은 특정한 인구학적 특성과 가정배경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사교육 참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일 때와 중학교 2학년일 때,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유의미한 사교육 참여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18>은 이항로짓 모형의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사교육 참여 확률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변수들은 성별,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형제자매수 등이다. 먼저 최종모형을 중심으로 여성 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변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사교육을 이용할 확률은 1.4배($\text{Exp}[0.361]$)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교육년수가 1년 길어지면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1.10배($\text{Exp}[0.096]$), 어머니의 교육년수가 1년 길어지면 1.14배($\text{Exp}[0.127]$)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1단위 증가하면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2.3배($\text{Exp}[0.847]$)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수를 살펴보면 형제자매수가 1명 많아지면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0.6배($\text{Exp}[-0.462]$) 낮아진다.

반면, 지역 변수의 경우 농촌지역이 서울이나 서울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비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으며

아버지의 직업이나 결혼 가정 여부의 경우도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8> 초등학교 4학년 사교육 참여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서울_1차	-.033	-.480	-.578
도시(서울제외)_1차	-.116	-.480	-.572 [†]
여학생_1차	.305 [†]	.322 [†]	.361 [*]
아버지 교육년수_1차		.102 [*]	.096 [*]
어머니 교육년수_1차		.134 ^{**}	.127 [*]
가구소득(자연대수)_1차		.825 ^{***}	.847 ^{***}
아버지_관리전문직_1차		.101	.124
결혼가정_1차			-.224
형제자매수_1차			-.462 ^{***}
절편	2.749 ^{***}	-4.388 ^{***}	-3.478 ^{**}
-2LL	1173.04	1072.30	1060.49
Pseudo R2(Nagelkerke)	.004	.108	.119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다음으로 <표 IV-19>는 중학교 2학년일 때 사교육 참여 모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초등학교 4학년일 때와는 달리 지역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구학적 변인만을 포함한 모형 1에서 학생들의 거주지역이 농촌이 아닌 서울지역일 때 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은 2.7배(=Exp[1.007])나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도시지역인 경우도 1.8배(=Exp[0.611])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족배경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지역간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간 격차의 상당부분이 지역간 가족배경의 차이에 따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가족배경의 수준이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들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요인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거주지역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9> 중학교 2학년 사교육 참여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서울_1차	1.007 ^{***}	.288	.225
도시(서울제외)_1차	.611 ^{***}	.155	.088
여학생_1차	-.039	-.038	.012
아버지 교육년수_1차		.060 [*]	.060 [*]
어머니 교육년수_1차		.077 ^{**}	.069 ^{**}
가구소득(자연대수)_1차		.778 ^{***}	.652 ^{***}
아버지_관리전문직_1차		-.063	-.029
결혼가정_1차			-.819 ^{***}
형제자매수_1차			-.225 ^{**}
절편	1.019 ^{***}	-4.414 ^{***}	-2.464 ^{***}
-2LL	2791.76	2599.34	2577.06
Pseudo R2(Nagelkerke)	.013	.113	.124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마지막으로 <표 IV-20>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사교육 참여 모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지역변수로 거주지역에 따른 격차가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고 1 때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 농촌지역보다 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은 2.2배($\equiv \text{Exp}[0.782]$)나 높고 서울을 제외한 도시지역인 경우에도 농촌지역보다 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은 1.4배($\equiv \text{Exp}[0.322]$)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0〉 고등학교 1학년 사교육 참여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서울_3차	1.490 ^{***}	.820 ^{***}	.782 ^{***}
도시(서울제외)_3차	.809 ^{***}	.352 [*]	.322 [*]
여학생_3차	.397 ^{***}	.491 ^{***}	.515 ^{***}
아버지 교육년수_3차		.088 ^{***}	.085 ^{***}
어머니 교육년수_3차		.057 [*]	.055 [*]
가구소득(자연대수)_3차		1.099 ^{***}	1.075 ^{***}
아버지_관리전문직_3차		.152	.168
결혼가정_3차			-.341
형제자매수_3차			-.142 [*]
절편	-.635 ^{***}	-8.229 ^{***}	-7.490 ^{***}
-2LL	3753.20	3388.33	3382.13
Pseudo R2(Nagelkerke)	.047	.203	.206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사교육 참여에 있어서 거주 지역별 격차는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상위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분명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부모의 교육, 가구소득 등 가족배경의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가족구조와 관련하여 형제자매수 변인으로 형제자매가 증가할수록 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추정되고 있다. 이는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 문제가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성별 결과 역시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이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2) 사교육비 모형

여기에서는 사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배경에 따라 사교육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교육 참여 모형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일 때의 개인당 사교육비 결정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 IV-21> 초등학교 4학년 사교육비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서울_1차	.459 ^{***}	.313 ^{***}	.288 ^{***}
도시(서울제외)_1차	.233 ^{***}	.146 ^{**}	.126 ^{**}
여학생_1차	-.036	-.015	-.008
아버지 교육년수_1차		.030 ^{***}	.029 ^{***}
어머니 교육년수_1차		.024 ^{**}	.021 ^{**}
가구소득(자연대수)_1차		.487 ^{***}	.497 ^{***}
아버지_관리전문직_1차		-.073 [*]	-.062 [†]
결혼가정_1차			.077
형제자매수_1차			-.120 ^{***}
절편	2.746 ^{***}	-.641 ^{***}	-.566 ^{**}
Adj R ²	.030	.224	.233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표 IV-21>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사교육비 모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지역변수를 살펴보면, 농촌지역에 비해서 서울이나 서울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사교육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서울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에 비해서 약 29%, 서울을 제외한 농촌지역의

경우 약 13% 사교육비가 높게 추정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사교육 참여 모형에서 사교육 이용 여부에 있어 지역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 4학년생들의 사교육비의 격차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의 경우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녀간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 4 학년 사교육 참여 모형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지만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22> 중학교 2학년 사교육비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서울_1차	.745 ^{***}	.412 ^{***}	.369 ^{***}
도시(서울제외)_1차	.424 ^{***}	.208 ^{***}	.168 ^{***}
여학생_1차	-.041	-.039 [†]	-.021
아버지 교육년수_1차		.025 ^{***}	.025 ^{***}
어머니 교육년수_1차		.027 ^{***}	.023 ^{***}
가구소득(자연대수)_1차		.413 ^{***}	.047 ^{***}
아버지_관리전문직_1차		-.008	-.002
결혼가정_1차			-.175 [*]
형제자매수_1차			-.113 ^{***}
절편	2.825 ^{***}	.060	.469 ^{**}
Adj R ²	.066	.267	.278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가족배경 변수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에 따라서 사교육 지출 규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곧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사교육비가 높게 추정되고 있다. 가족구조와 관련해서는 결손가정 유무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2>는 중학교 2학년일 때 개인당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지역간 차이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에 비해서 약 37%, 도시지역의 경우 약 17% 개인당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 배경 변수들의 영향력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3> 고등학교 1학년 사교육비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서울_3차	.805 ^{***}	.562 ^{***}	.528 ^{***}
도시(서울제외)_3차	.430 ^{***}	.254 ^{**}	.228 ^{**}
여학생_3차	-.102 ^{**}	-.066 [*]	-.049
아버지 교육년수_3차		.021 ^{**}	.020 [*]
어머니 교육년수_3차		.022 [*]	.019 [*]
가구소득(자연대수)_3차		.522 ^{***}	.526 ^{***}
아버지_관리전문직_3차		.039	.054
결손가정_3차			-.024
형제자매수_3차			-.124 ^{***}
절편	3.041 ^{***}	-.391 [†]	-.184
Adj R ²	.066	.219	.226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표 IV-23>은 고등학교 1학년 일 때 사교육비 결정모형의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분석결과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때와 대동소이하며 지역간 차이나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거주 지역별 차이는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상위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분명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교육 참여 모형의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두 번째로 부모의 교육, 가구소득 등 가족배경의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구조와 관련하여 형제자매가 증가할수록 개인당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학업성적 모형

여기에서는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가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IV-24>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업성적에 미치는 사교육 참여여부로 측정된 사교육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은 사교육 참여여부만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에 따르면 사교육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업성적의 약 3%를 설명하고 있다.

모형 2는 인구학적 및 개인적 특성을, 모형 3은 가족배경 변수들을, 모형 4는 가족구조와 부모의 애착 정도를 추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사교육 참여여부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곧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받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학업성적이 높게 추정되고 있다.

다음으로 <표 IV-25>는 <표 IV-24>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업성적모형이나 사교육 참여여부가 아닌 사교육비(자연대수)가 사교육 투입변수로 사용되었다. 이 경우에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게 된다.

〈표 IV-24〉 초등학교 4학년 학업성적 모형(사교육 여부)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사교육유무	3.847 ^{***}	3.195 ^{***}	2.224 ^{***}	2.042 ^{***}
서울지역		.893 [*]	.223	.267
도시지역(서울제외)		1.020 ^{**}	.580 [†]	.592 [†]
여학생		.982 ^{***}	1.046 ^{***}	.750 ^{***}
자아존중감		.503 ^{***}	.467 ^{***}	.369 ^{***}
아버지 교육년수			.222 ^{***}	.188 ^{***}
어머니 교육년수			.122 [*]	.108 [†]
가구소득(자연대수)			1.089 ^{***}	.968 ^{***}
아버지직업_관리전문직			.153	.110
결혼가정				.094
형제자매수				-.094
부모애착				.268
절편	26.993 ^{***}	15.680 ^{***}	6.995 ^{***}	4.655 ^{**}
Adj R ²	.030	.198	.246	.288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분석 결과는 사교육 참여 여부를 투입했을 때와 큰 차이 없이 나타나고 있다. 곧 사교육비가 클수록 학업성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에 대한 설명력은 사교육 참여보다 크게 나타나 연구모형의 약 7%를 사교육비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변수들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거주 지역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애착이 많을수록 학업성

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5> 초등학교 4학년 학업성적 모형(사교육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사교육비(자연대수)	1.982 ^{***}	1.619 ^{***}	1.096 ^{***}	1.089 ^{***}
서울지역		.099	-.220	-.149
도시지역(서울제외)		.553	.334	.390
여학생		.994 ^{***}	1.018 ^{***}	.699 ^{***}
자아존중감		.460 ^{***}	.445 ^{***}	.343 ^{***}
아버지 교육년수			.182 ^{***}	.148 ^{**}
어머니 교육년수			.129 [*]	.127 [*]
가구소득(자연대수)			.591 [*]	.431 [†]
아버지직업_관리전문직			.274	.199
결손가정				-.511
형제자매수				.081
부모애착				.276 ^{***}
절편	24.935 ^{***}	15.436 ^{***}	9.917 ^{***}	7.782 ^{***}
Adj R ²	.066	.209	.232	.279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다음으로 <표 IV-26>과 <표 IV-27>은 중학교 2학년일 때 사교육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전자는 사교육 참여여부를, 후자는 사교육비를 독립변수로 포함하고 있다.

먼저 <표 IV-26>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받지 않은 학

생들보다 높게 추정되고 있으며 학업성적에 대해서 약 5%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6> 중학교 2학년 학업성적 모형(사교육 여부)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중2때 사교육 유무	3.189 ^{***}	2.608 ^{***}	1.884 ^{***}	1.874 ^{***}
서울지역		.598	-.654 [†]	-.603
도시지역(서울제외)		.316	-.506 [†]	-.479
여학생		.408 ^{**}	.416 [*]	.262
자아존중감		.374 ^{***}	.348 ^{***}	.299 ^{***}
개인학습시간		.002 ^{***}	.002 ^{***}	.002 ^{***}
아버지 교육년수			.218 ^{***}	.212 ^{***}
어머니 교육년수			.141 ^{**}	.134 ^{**}
중2때 가구소득(자연대수)			.702 ^{***}	.620 ^{***}
아버지직업_관리전문직			.556 [†]	.507 [†]
결혼가정				-.416
형제자매수				.102
부모애착				.130 ^{***}
절편	22.402 ^{***}	14.145 ^{***}	7.725 ^{***}	7.079 ^{***}
Adj R ²	.053	.176	.230	.242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표 IV-27>은 사교육 참여여부 대신 사교육비(자연대수)를 모형에 투입한 경우로 이 역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학업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그 영향력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함에 따라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가족배경 요인을 통제했을 때 사교육비의 영향력은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

이 사교육 참여나 규모에 있어서 가족배경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배경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사교육의 효과는 크게 감소하게 된다.

<표 IV-27> 중학교 2학년 학업성적 모형(사교육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중2때 사교육비(자연대수)	1.602 ^{***}	1.297 ^{***}	.710 ^{***}	.711 ^{***}
서울지역		-.175	-.881 [†]	-.684
도시지역(서울제외)		-.142	-.689 [†]	-.532
여학생		.327 [†]	.328 [†]	.184
자아존중감		.361 ^{***}	.343 ^{***}	.296 ^{***}
개인학습시간		.002 ^{***}	.002 ^{***}	.001 ^{***}
아버지 교육년수			.234 ^{***}	.224 ^{***}
어머니 교육년수			.133 [*]	.136 ^{**}
중2때 가구소득(자연대수)			.180	.036
아버지직업_관리전문직			.628 [*]	.590 [*]
결손가정				-1.432 [*]
형제자매수				.181
부모애착				.123 ^{***}
절편	20.341 ^{***}	13.461 ^{***}	10.462 ^{***}	11.002 ^{***}
Adj R ²	.043	.153	.190	.203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마지막으로 <표 IV-28>과 <표 IV-29>는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사교육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28>에서 다른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 1에서 사교육 참여 여부는 학업성적의 약 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미약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업성적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사교육 참여 여부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된다.

〈표 IV-28〉 고등학교 1학년 학업성적 모형(사교육 여부)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고1때 사교육 유무	.898 ^{***}	.555 ^{**}	.255	.192
서울지역		.238	-.232	-.125
도시지역(서울제외)		.013	-.293	-.239
여학생		-.375 [†]	-.313 [†]	-.496 ^{**}
자아존중감		.287 ^{***}	.278 ^{***}	.241 ^{***}
개인학습시간		.001 ^{***}	.001 ^{***}	.001 ^{***}
아버지 교육년수			.051	.052
어머니 교육년수			.096 [†]	.089
고1때 가구소득(자연대수)			.247	.131
아버지직업_관리전문직			.669 [†]	.606 [*]
결혼가정				-.692
형제자매수				.213
부모애착				.118 ^{***}
절편	24.213 ^{***}	18.116 ^{***}	15.524 ^{***}	15.115 ^{***}
Adj R ²	.010	.098	.110	.123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표 IV-29> 고등학교 1학년 학업성적 모형(사교육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고1때 사교육비(자연대수)	.834 ^{***}	.606 ^{***}	.399 ^{**}	.632 [*]
서울지역		-.598	-.875 [†]	-.840 [†]
도시지역(서울제외)		-.530	-.741	-.777 [†]
여학생		-.564 ^{**}	-.529 ^{**}	-.731 ^{***}
자아존중감		.322 ^{***}	.312 ^{***}	.266 ^{***}
개인학습시간		.001 ^{***}	.001 ^{***}	.001 ^{***}
아버지 교육년수			.101 [*]	.097 [*]
어머니 교육년수			.099 [*]	.095 [*]
고1때 가구소득(자연대수)			.003	.042
아버지직업_관리전문직			.413	.319
결혼가정				.640
형제자매수				.207
부모애착				.129 ^{***}
절편	22.168 ^{***}	16.626 ^{***}	15.062 ^{***}	12.549 ^{***}
Adj R ²	.021	.122	.134	.147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표 IV-29>는 사교육비를 투입했을 때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형1에서 사교육비는 학업성적의 약 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교육의 영향력은 초등학교 4학년 때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크며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감소하고 사교육 참여 여부를 독립변수로 투입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학업성적에 미치는 사교육 효과가 주로 고등학교 이전에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고교진학 모형

여기에서는 사교육이 중학교 졸업자들이 어느 유형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30>은 사교육 여부를 독립변수에 투입했을 때의 결과이며 <표 IV-31>은 사교육비(자연대수)를 독립변수에 투입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모형은 종속변수를 진학한 고교 계열로 설정하고 전문고(전 실업고)를 기준범주로 특목/자립형 사립고 진학과 일반고 진학 확률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먼저 <표 IV-30>을 통해 사교육 참여 여부가 고교 진학 계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교육 참여 여부는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전문고 대신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진학할 확률은 2.5배(≒ $\text{Exp}[0.903]$)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유의수준은 10%에 그치고 있다. 반면 전문고가 아닌 일반고에 진학할 가능성은 3.9배(≒ $\text{Exp}[1.357]$)나 높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고교 진학경로의 차이는 전문고와 일반고 사이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교육 참여 여부 자체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진학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고교 진학경로에 대해서 중학교 학업성적의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등도 진학 여부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전문고 대비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진학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전문고 대비 일반고 진학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표 IV-30> 고교진학 모형(사교육 여부)

	특목·자립형사립고/ 전문고	일반고/ 전문고
중3 때 자아존중감	.089 [†]	.009
중3 때 개인학습시간	.001 [†]	.000
중 3 때 학업성적	.298 ^{***}	.206 ^{***}
아버지 교육년수	.310 ^{**}	.123 ^{***}
어머니 교육년수	.103	.004
가구소득(자연대수)	.831 [*]	.624 ^{***}
형제자매수	-.064	-.093
결혼가정	-.050	-.004
중3 때 사교육참여여부	.903 [†]	1.357 ^{***}
중3 때 서울지역	.079	-.174
중3 때 도시지역(서울제외)	-.443	-.268
여학생	.270	.416 ^{**}
아버지직업_관리전문직	.486	.460
절편	-21.509 ^{***}	-9.655 ^{***}
-2LL	1489.6	
Pseudo R ² (Nagelkerke)	.432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표 IV-31>은 독립변수에 사교육비를 포함한 고교진학 모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교육비의 경우 매우 뚜렷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고 대비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진학 가능성은 사교육비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2.5배(≡Exp[0.903])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고 대비 일반고 진학의 경우도 1.7배(≡Exp[0.903])나 높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 참여라는 질적 차이보다는 사교육 참여자들간의 사교육비 규모라는 양적 차이가 더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표 IV-31> 고교진학 모형(사교육비)

	특목·자립형사립 고/ 전문고	일반고/ 전문고
중3 때 자아존중감	.053	.002
중3 때 개인학습시간	.001 [*]	.000 [†]
사교육비(자연대수)	.921 ^{**}	.511 ^{***}
중 3 때 학업성적	.320 ^{***}	.249 ^{***}
아버지 교육년수	.338 ^{**}	.129 ^{**}
어머니 교육년수	.057	-.032
가구소득(자연대수)	.862 [*]	.820 ^{***}
형제자매수	-.007	-.163
결혼가정	-.034	.020
중3 때 서울지역	.224	-.072
중3 때 도시지역(서울제외)	-.342	-.109
여학생	.458	.584 ^{**}
아버지직업_관리전문직	.395	.456
절편	-24.124 ^{***}	-12.264
-2LL	1013.02	
Pseudo R ² (Nagelkerke)	.380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고교 진학모형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사교육은 전문고 대신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혹은 일반고에 진학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사교육비로 측정된 경우에 사교육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진학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해석해 보면, 대학진학 단계보다는 고교 진학 단계에서

사교육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4) 학업 스트레스 모형

여기에서는 사교육의 부정적인 효과와 관련하여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사교육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표 IV-32> 사교육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사교육 받지 않음	-.747 [*]	-.702 ^{***}	-1.353 ^{***}
사교육 1-2과목 받음	-.076	.076	-1.419 ^{***}
학교성적	-.041 [*]	-.056 ^{***}	-.060 ^{**}
서울지역	.825 ^{**}	-.033	.530
도시지역(서울제외)	.368	-.044	.221
여학생	.126	.377 ^{**}	.849 ^{***}
자아존중감	-.274 ^{***}	-.256 ^{***}	-.210 ^{***}
개인학습시간	-	-	.000 ^{***}
아버지 교육년수	.089 [*]	.015	.091 [*]
어머니 교육년수	-.098 [*]	.097 [*]	.037
가구소득(자연대수)	.372 [*]	.256 [*]	.138
아버지직업_관리전문직	.023	-.054	-.458 [*]
결손가정	-.592	-.180	-1.084 ^{**}
형제자매수	.081	-.120	.090
부모애착	-.128 ^{***}	-.107 ^{***}	-.058 ^{**}
절편	16.624 ^{***}	21.591 ^{***}	20.840 ^{***}
Adj R ²	.144	.102	.111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표 IV-32>은 초등학교 4학년 때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일 때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사교육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교육 변수를 사교육 참여 여부와 사교육 과목수를 종합하여 사용하였다. 기준 범주는 사교육을 받는 과목수가 3과목이상인 경우이며 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1-2과목만을 받는 경우를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사교육의 부정적인 효과는 매우 분명하게 관측되고 있으며 특히 고교 진학 후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에는 1-2과목만 받는 경우도 3과목 이상 받는 경우보다 학업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 요약
2. 정책 제언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 요약

1)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와 추세

KYPS의 초등패널자료와 중등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사교육 참여율은 93.9%였다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사교육 참여율은 91.7%로 소폭 감소한 후 중학교 3학년일 때 73.8%로 낮아졌다가 고교 진학 후 58.9%로 크게 낮아져 중·고교 진학 등 상급학교 진학 시에 사교육 이용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사교육 이용비율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은 대신 지역별 차이는 학급이 올라갈수록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일 때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으나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지역별 차이가 분명해 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사교육 이용비율은 94.3%인데 비해서 서울을 제외한 도시지역은 91.5%, 농촌지역은 87.5%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 2학년일 때 지역간 사교육 이용 비율은 서울지역이 87.6%인데 비해 농촌지역은 70.6%로 17.0%p나 서울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고교 진학 후 더 벌어져 서울(80.7%)이 농촌(33.9%)보다 무려 46.7%p나 사교육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최하위 성적군(1분위)은 87.9%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최상위 성적군(5분위)은 거의 전원에 해당하는 98.4%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성적군의 경우 초4에서 초6까지 사교육 이용비율이 감소(87.9% → 81.2% → 81.9%)한데 비해 최상위 성적군은 학년이 올라가도 사교육 이용비율이 거의 감소하지 않고 있다.

중 2에서 고2까지 학교성적별 사교육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학교성적별 사교육 이용비율은 판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 때는 최하위 성적군보다 최상위 성적군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서 고등학교 때는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 2 때 최하위 성적군의 사교육 이용비율은 67.3%인데 비해서 최상위 성적군은 91.9%가 사교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고2 때는 최하위 성적군 학생들의 61.3%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데 비해서 최상위 성적군 학생들은 54.9%만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Baker et. al.(2001)의 주장을 상기시킨다. 한국은 41개국 중 3개국에서만 보여주는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보장에 사교육의 역할이 있다기보다는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학업성취도를 얻기 위한 강화에 사교육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KYPS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나 고교 단계에서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Baker et. al.(2001)이 분석에 사용한 TIMSS 자료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란 점을 상기한다면 우리나라의 중학교 단계에서 강화전략이 일반적이지만 고교 단계에서 사교육의 역할은 강화전략보다는 보강전략으로 일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과목수별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6학년의 경우 공통적으로 5개 과목을 듣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분포는 점차 상승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일 때 5개 과목을 듣는 비중은 19.8%였으나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비중은 33.2%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중2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2부터 고2까지의 사교육 이용 과목수를 살펴보면, 중2 때는 평균 4.5개, 중3 때는 4.1개, 고1 때는 2.1개, 고2 때는 2.2개로 나타나 고등학교 진학이후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과목수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교육시간의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사교육 이용시간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한 경우는 영어, 수학, 미술, 체육 과목 등이었다. 중학교 때 사교육시간은 영어, 수학 과목이 가장 길고 예체능 과목이 가장 짧았으나

고등학교 때 사교육시간 중 가장 긴 것은 미술과목이었다. 고교 진학 이후 학교유형별 사교육 이용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은 예·체능 과목에 대한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고나 전문고(전 실업고)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일 때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학생의 영어 사교육시간은 274.7분인데 비해 일반고는 241.6분, 전문고는 238.4분으로 가장 길었고 수학 역시 각각 273.0분, 256.3분, 258.4분 등으로 나타나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의 사교육 이용시간이 가장 길었다.

다음으로 사교육비의 실태를 살펴보면,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24.2만원 → 26.8만원 → 32.0만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때의 사교육비 추세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2학년일 때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32.1만원인데 비해서 중 3 때는 35.2만원, 고 1 때는 42.4만원, 고2 때는 44.6만원으로 학년별로 2만 원가량 오르고 고등학교 진학 시 7만 원가량 사교육비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KYPS의 초등패널자료와 중등패널자료를 통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시기의 사교육 실태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이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사교육 이용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나 사교육비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사교육이 이용이나 과목수, 비용 등에 있어서 남녀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넷째, 지역별 차이는 특히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서울지역의 사교육비가 기타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다섯째,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사교육 이용비율이 높고 사교육비도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분석 모형의 결과

먼저 사교육 참여 모형의 경우 사교육 참여에 있어서 거주 지역별 격차는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상위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분명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부모의 교육, 가구소득 등 가족배경의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가족구조와 관련하여 형제자매수의 결과로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추정되고 있다. 이는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 문제가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성별 결과 역시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이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두 번째로 사교육비 모형의 경우 먼저 거주 지역별 차이는 사교육 참여모형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상위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분명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부모의 교육, 가구소득 등 가족배경의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구조와 관련하여 형제자매가 증가할수록 개인당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로 학업성적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성적에 대한 사교육의 영향력은 초등학교 4학년 때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크며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감소하고 사교육 참여 여부를 독립변수로 투입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학업성적에 미치는 사교육 효과가 주로 고등학교 이전에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고교 진학모형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사교육은 전문고 대신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혹은 일반고에 진학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사교육비로 측정된 경우에 사교육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진학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해석해 보면, 대학 진학 단계보다는 고교 진학 단

계에서 사교육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사교육의 부정적인 효과는 매우 분명하게 관측되고 있으며 특히 고교 진학 후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에는 1-2과목만 받는 경우도 3과목 이상 받는 경우보다 학업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정책 제언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매우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세를 염두에 둔다면 최소한 축소될 개연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 연구에서 학업성취도와 고교 진학경로에 미치는 사교육 효과는 대부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영향의 정도에 대한 논의를 제외한다면 사교육과 학업성취간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우천식 등(2004)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사교육 의견조사에서 과외비용 대비 기대효과 달성 정도를 물어본 바 있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 과외학습에 투자한 비용에 대비해 볼 때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었다는 응답이 학생의 경우 90.2%, 학부모의 경우 86.2%로 나타나고 있다. 기대목표인 대학입시에 미치는 사교육 효과의 경우도 학생의 경우 94.0%, 학부모의 경우 91.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주관적 기대수준이 높다는 것은 사교육의 객관적인 효과 여부를 떠나 사교육의 역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다른 한편, 이 연구에서 확인한 몇 가지 사실들은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교육의 역할: 강화전략 대 보강전략

한국에서 사교육은 거의 대부분의 학년 단계에서 가정 형편이 좋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Baker et. al.(2001)의 41개국 비교 연구에서 대다수 국가들에서 사교육의 기본적인 역

할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성적을 보강하는데 있었다. 한 국가에서 사교육의 역할이 강화전략(enrichment strategy)인가, 보강전략(remedial strategy)인가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서 보여주는 격차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면 후자는 오히려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사교육 억제가 쉽지 않다면 사교육의 역할이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국제적으로 대다수 국가에서 사교육이 보강 역할을 담당하는데 비해서 한국은 강화 역할이 큰가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학부모의 사교육 투자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본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좋은 학업성취도가 나올 수 있도록 사교육 투자를 미리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좋은 성취도를 보일 수 있는 자녀의 경우에도 사교육을 받고 보는 관행이 우리사회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과잉 중복투자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유효하다면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필요이상의 투자를 유도하는 사교육기관들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Baker et. al.(2001)의 연구에서 비교대상국가 41개국 중 한국을 비롯하여 루마니아, 태국 등 3개국만이 강화전략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사교육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2) 사교육 이용 강도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교육 이용 강도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평균 5과목에 대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중학생의 경우도 4과목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 이용 강도는 사교육 이용 여부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 사교육을 이용하게 되면 제한된 시간에서 다른 유용한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된다. 일례로 이 연구에서 3과목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 비해 매우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과도한 사교육 이용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3) 사교육의 부정적 효과

지금까지 사교육 효과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학업성취도와와의 연관성에서 이루어져 왔다. 반면 사교육이 학업성적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논의와 상관없이 사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사교육의 부정적인 효과는 매우 분명하게 관측되고 있으며 특히 고교 진학 후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학업스트레스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 대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줄어뜨리게 하며 동아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 건전한 사회참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사교육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사회 일반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경식. 2003. “학교 학업성적에 대한 과외학습의 효과.” 『교육사회학연구』 13(3): 21-41.
- 김미란. 2005. “교육생산함수의 추정: 학업성취도에 대한 회귀분석.” 제1회 한국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영철 · 양승실 · 김영화 · 이주호. 2001. “사교육비 해소 방안: 과열 과외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19(3): 149-180.
- 김영화. 2003. “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사회학연구』 13(3): 85-108.
- 김지경. 2004.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15(3): 67-86.
- 반상진 · 정성석 · 양성관. 2005. “과외가 학습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 방하남 · 김기현.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8(4): 193-222.
- 양정호. 2007. “사교육의 대학진학 효과: 중2부터 대학 1학년까지 사교육 경험 중단 분석”. 41-59.
- 양정호. 2006.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 추세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5(3): 67-86.
- 양정호. 2005.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위계적 선행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2): 121-145.
- 우천식 편. 2004.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유한구. 2006. 『사회계층과 교육격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명현 · 김진영. 2005. “사교육(과외)의 학습성취도 향상 효과에 관한 연구.”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 이성림. 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 이승신. 2002.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15(3): 67-86.
- 이정환. 2002. “가족환경, 과외, 성적.” 『한국사회학』 36(6): 195-213.
- 최형재. 2007. “사교육이 대학진학에 도움을 주는가?”.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 Bray, M. 1999. The Shadow Education System: Private Tutoring and Its Implications for Plannrers. *Fundamentals of Educational Planning* (61),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Bray, M., and Kwok, P. 2003. "Demand for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Conceptual Considerations, and Socio-Economic Patterns in Hong Kong".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2(6): 611-620.
- David P. Baker, Motoko Akiba, Gerald K. LeTendre and Alexander W. Wiseman. 2001. "Worldwide Shadow Education: Outside-School Learning, Institutional Quality of Schooling, and Cross-National Mathematics Achieve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3(1): 1-17.
- Fergany, N. 1994. "Survey of access to primary education and acquisition of basic literacy skills in three governorates in Egypt". Cairo: UNICEF; Almishkat Centre for Research and Training.
- Kang, C. H. 2005. "The More the Better? The Effect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on Academic Performance: Evidence from Exogenous Variation in Birth Order".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resented at the 1st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y Conference, Seoul, Korea.
- Kulpoo, D. 1998. "The quality of education: same policy suggestions based on a survey of schools in Mauritius". *SACMEQ Policy Research: Report No. 1*, Paris: UNESCO/IIEP.
- Polydorides, G. 1986. "The determinants of educational achievement at the end of secondary schooling: the case of Greec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an Francio, 16-20 April.
- Sawada, T. and Kobayashi, S. 1986.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arithmetic and mathematics education at juku. Translated with an afterword by Horvath,P.; Compendium 12, Tokyo: 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 Stevenson, D.L. and David P. Baker. 1992. "Shadow Education and Allocation in Formal Schoolong: Transition to University in Japa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6): 1639-1657.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김기현·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김신영·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김영호·이민희
 07-R05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장근영·김형주
 07-R05-1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인권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박창남·이중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김희균·조아미·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권일남·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 실태와 대책 / 성운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최인재·설인자·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혜연·서정아·조흥식·정익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
 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김은정·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
 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배지혜·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le,
 Bethany Willis Hepp·Gudrun Quenzel·Michaela Janotta·Janina Herrmann·Hideki Watanabe·
 Shigeki Matsuda·Yasuaki Aota·Masayuki Ozawa·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한민족 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태기 · 임영언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과 생활실태연구 / 임영삼 · 황영삼 · 고가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이나 (자체번호 07-R13-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저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수시과제

-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윤숙
-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 · 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수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 07-R22 초등학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용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 · 장근영 · 김남정 · 박정배
-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 · 안전 · 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양계민
-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 · 임희진
-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 · 연규철 · 이교봉
-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강홍렬 · 고원 · 김민 · 김은경 · 김지선 · 김현주 · 나익순 · 마경희 · 손승영 · 손유미 · 우명숙 · 이승현 · 임천순 · 전상진 · 주용국 · 진미석 · 채재은 · 최규종 · 최순종 · 최화영
-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고원 · 강홍렬
-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 · 김기현
- 07-R38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사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 조혜영 · 이창호
- 07-R39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인재 · 김경준 · 백혜정 · 강진구 · 김태희 · 송미경 · 이유미
-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 · 조혜영 · 이춘화 · 김경준 · 김현철 · 김기현 · 임희진 · 임지연 · 길은배 · 김민 · 유홍식 · 전명기
-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 · 김은정 · 백원근 · 허병두
-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 · 황진구
-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수용도 조사 연구 / 김영한 · 송병국 · 오홍석
-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 · 장근영 · 김호순
-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 · 김승규 · 송순재
-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 · 김기현
-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김형주
-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 · 이경상
-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 오해섭 · 이해연
-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 · 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 (1.23~24)
- 07-S02 「Internation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 (4.20)
-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 (5.12)
-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 (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 (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 (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 (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 (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9.14)
- 07-S14 「한민족 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 (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 (12.24)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해당사항 없음.

연구보고 07-R01-3

**청소년 사교육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대한 중단분석**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크리홍보(주) 전화 (02)737-5377 대표 김규만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686-7(93330)